

#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2014년 1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sli.org](http://www.ksli.org) [www.facebook.com/ksiedit](http://www.facebook.com/ksiedit)

##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sup>1)</sup>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요약>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한 동안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러한 세대 담론의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2030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대와 30대는 고학력자가 많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취업난을 겪는 20대 남녀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 정착기에 접어든 30대 남자,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처지가 뚜렷하게 다르다.

5060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인생 하강 곡선과 노동시장 퇴출기에 접어든 5060이 겪는 고용 및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감,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인도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5060에게 그들의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각 세대에 걸 맞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1) 이 글은 2013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로 작성한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 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2013년 9월)」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제1장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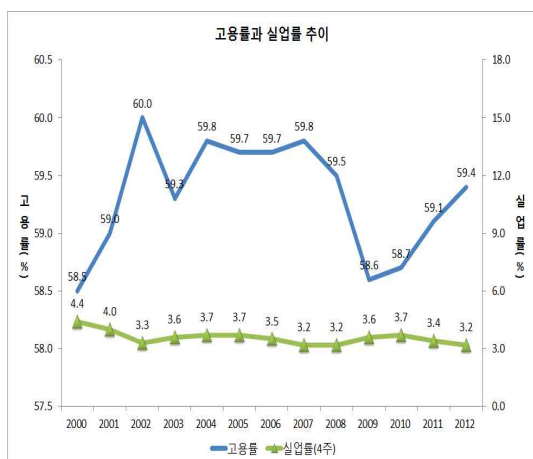
-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2030세대와 5060세대는 투표행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30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5060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세대가 겪은 역사적 문화적 체험 이외에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대선 직후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히려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5060에게 그들의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 이 글은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세대 간 투표행위에 차이가 발생한 객관적 토대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장에서는 주요 노동경제지표를 사용해서 고용사정과 생활상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12년 8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고용사정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 자료(2012년 3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생활 상태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 제2장 연도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추이

### 1. 고용사정

#### 1) 고용률 저하

- 참여정부(2004~7년) 때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7~59.8%였다. MB정부 때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2009년 58.6%로 푹 떨어졌다. 2010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59.4%로 증가했지만, 참여정부 때 수준에 못 미쳤다.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실업률은 3.2~3.7%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 남성은 2002년(72.2%)부터 2010년(70.1%) 사이 고용률이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70.8%로 조금 높아졌다. 여성은 2003년(47.4%)부터 2007년(48.9%) 사이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2009년 47.7%로 푹 떨어졌다. 2010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48.4%로 조금 증가했다.



#### 2)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0%였다. 노동부가 조사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3%고,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1인당 피용자 보수총액 인상률은 1.3%다.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1.7%p,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년 2.7%p만큼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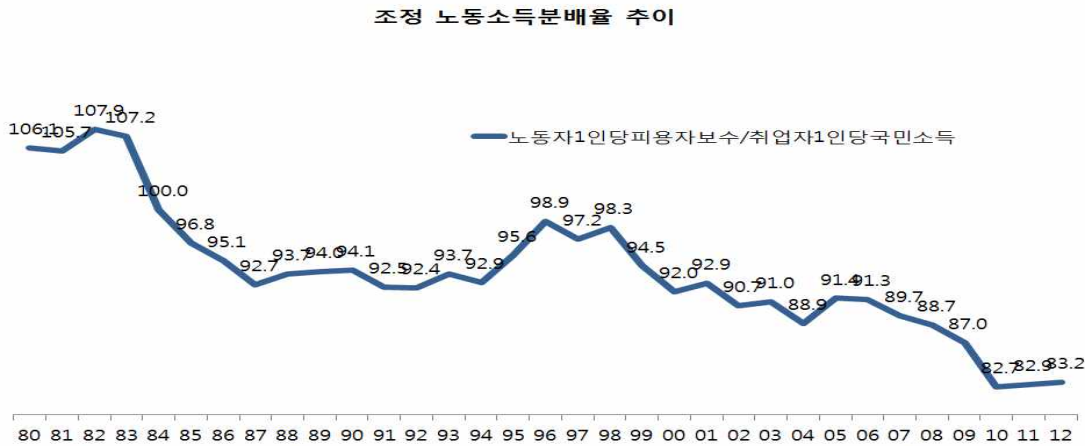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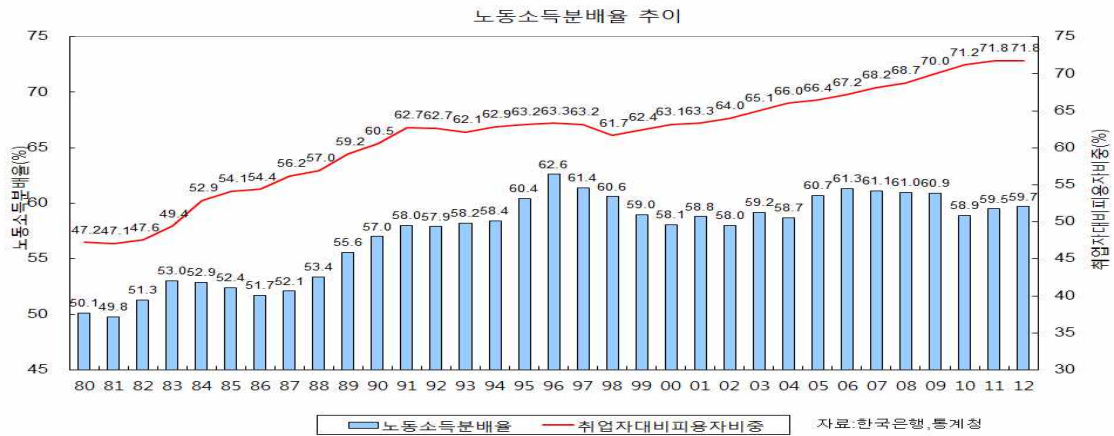
<표1>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단위:%)

연도	경제 성장률 (실질GDP)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 률+물가 상승률	실질임금(만원, 2010=100)			실질임금 인상률(%)		
				노동부 5인 이상 상용직		한국은행 피용자	노동부 5인 이상 상용직		한국은행 피용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인당보수	임금총액	정액급여	인당보수
2001	4.0	4.1	8.1	230	165	228	0.9	2.2	3.2
2002	7.2	2.8	10.0	249	180	235	8.2	9.0	3.0
2003	2.8	3.5	6.3	263	189	244	5.5	5.1	3.8
2004	4.6	3.6	8.2	269	195	247	2.3	3.1	1.1
2005	4.0	2.8	6.8	279	204	253	3.7	4.5	2.4
2006	5.2	2.2	7.4	289	213	256	3.4	4.4	1.2
2007	5.1	2.5	7.6	297	221	260	2.9	3.7	1.5
2008	2.3	4.7	7.0	296	218	258	-0.2	-1.3	-0.5
2009	0.3	2.8	3.1	295	220	257	-0.6	1.2	-0.4
2010	6.3	3.0	9.3	305	223	258	3.4	1.4	0.3
2011	3.6	4.0	7.6	290	225	257	-4.7	0.8	-0.2
2012	2.0	2.2	4.2	299	232	258	3.0	3.2	0.1
2001-12	4.0	3.2	7.2	280	207	251	2.3	3.1	1.3
참여정부	4.3	2.9	7.3	279	204	252	3.6	4.1	2.0
MB정부	2.9	3.3	6.2	297	224	258	0.2	1.1	-0.1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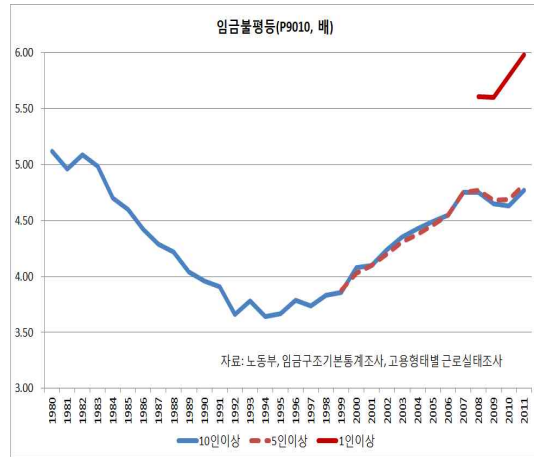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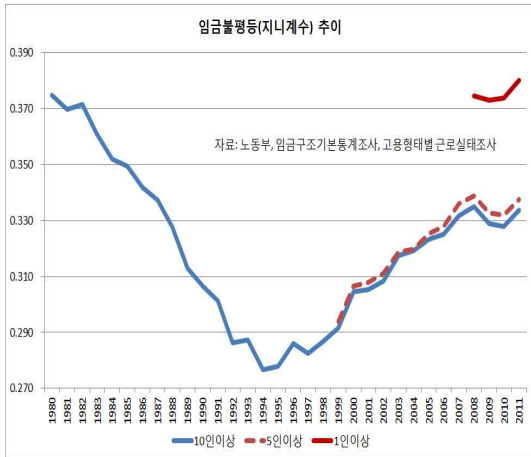
### 3)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정점으로 2012년 59.7%로 2.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중 노동자 비중은 63.3%에서 71.8%로 8.5%p 증가했다. 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98.9%에서 2012년 83.2%로 15.7%p 하락했다.
-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2.6%였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해 1999~2004년에는 58.0~59.2%로 뚝 떨어졌다.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노동소득분배율은 60.7~61.3%로 개선되었지만, 2010~12년에는 다시 58.9~59.7%로 뚝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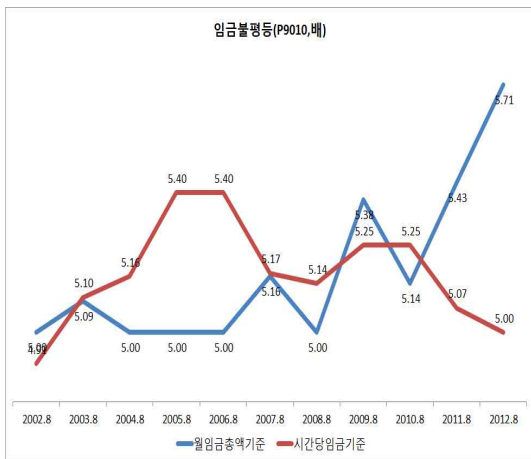


#### 4) 임금불평등 심화

-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면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1994년(0.272)부터 2008년(0.335)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p9010)도 1994년(3.64배)부터 2008년(4.75배)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09~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임금불평등이 조금 완화되었지만, 2011년에는 지니계수 0.337, p9010 4.77배로 다시 높아졌다.
- 5인 이상 사업체,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임금불평등 지표는 더 확대된다. 2011년 10인 이상 사업체 지니계수는 0.337이고 p9010은 4.77배지만, 5인 이상 사업체 지니계수는 0.337이고 p9010은 4.82배고, 1인 이상 사업체 지니계수는 0.380이고 p9010은 5.98배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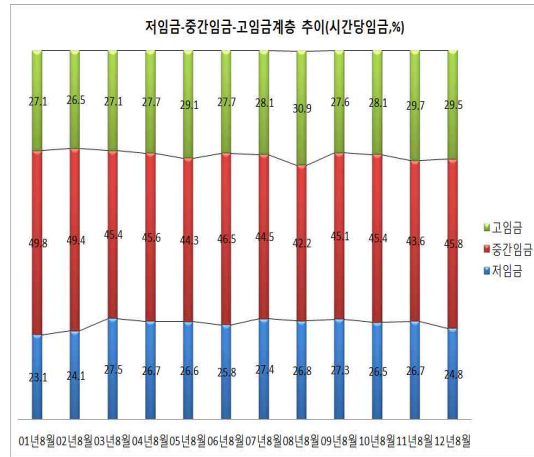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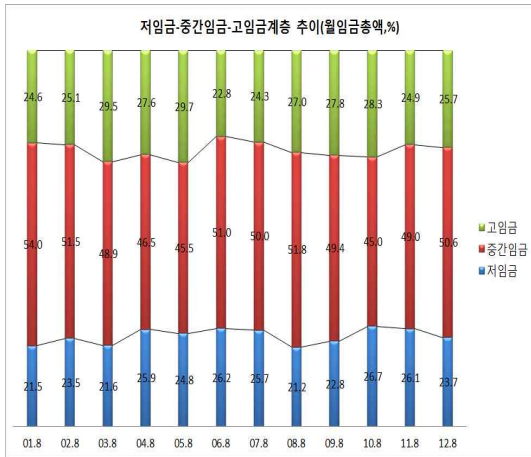


○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p9010)은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2년 5.0배에서 2012년 5.7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9배에서 5.0배로 증가했다. 매년 오르내리고 있지만 2003년 이후는 모두 5.0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임금불평등 수준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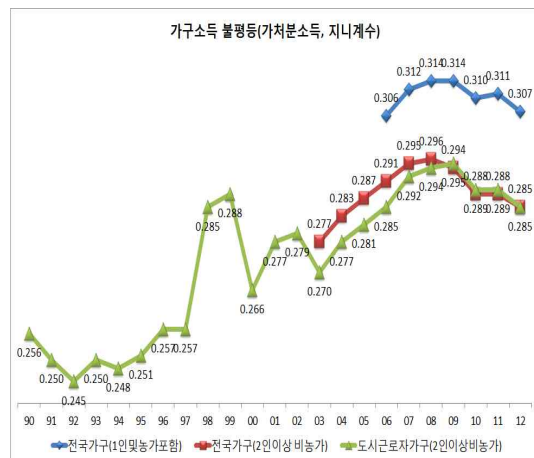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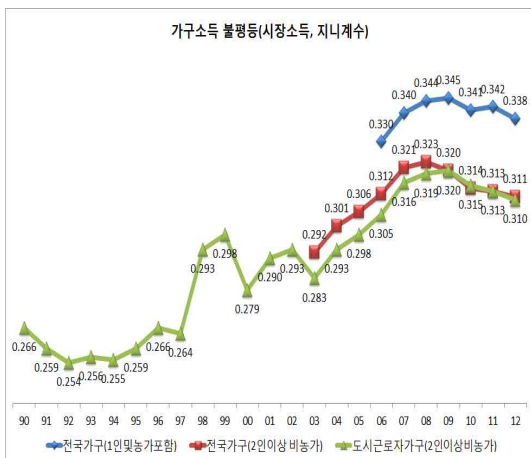
### 5) 저임금계층 증가

○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2002년 23.5%에서 2012년 23.7%로 0.2%p 증가하고, 고임금계층(중위임금의 3/2 이상)은 25.1%에서 25.7%로 0.6%p 증가하고, 중간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은 51.5%에서 50.6%로 0.9%p 감소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저임금계층 비중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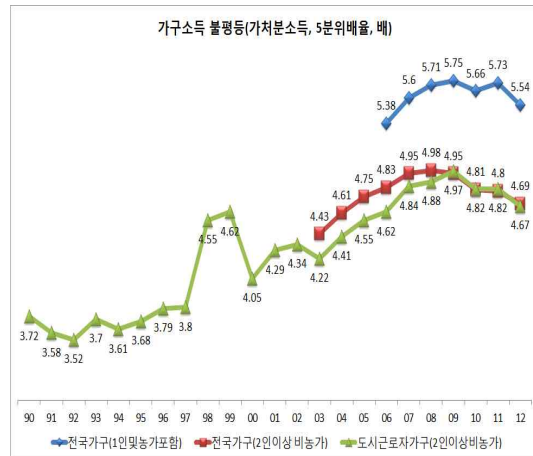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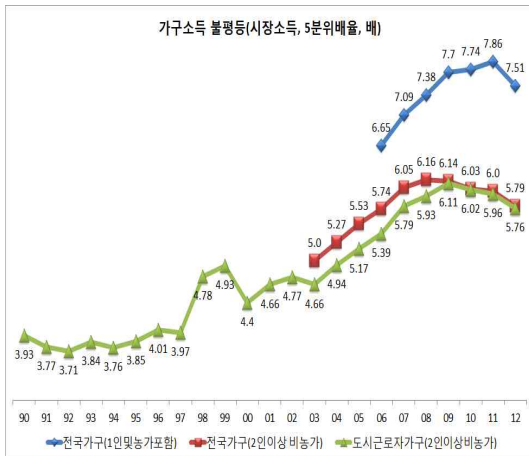


## 6)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고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지니계수를 사용하던 5분위 배율(5분위 계층 평균소득/1분위 계층 평균소득)을 사용하던, 가구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초반을 저점으로 2008~9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0~12년에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하락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 현상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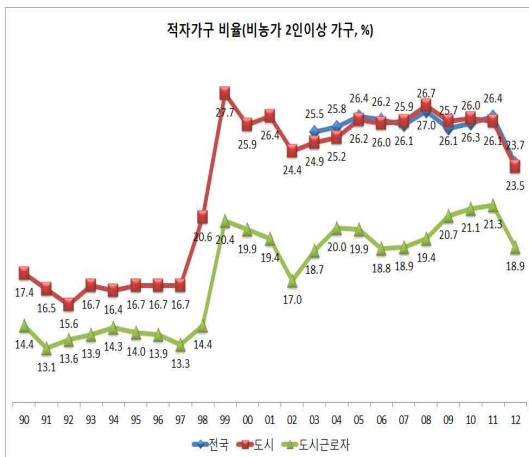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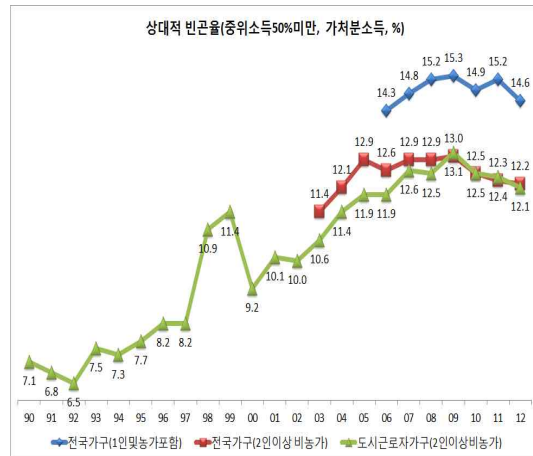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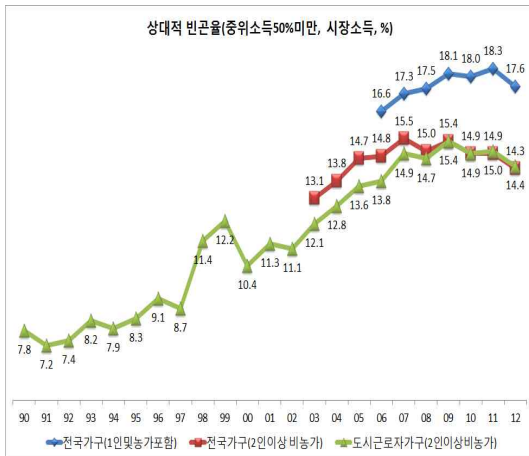


### 7)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

○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가계수지 적자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2인 이상 도시 가구 중 가계수지 적자가구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했다(1997년 16.7% → 1999년 27.7%). 그 뒤 조금 감소하다가 2002년 24.4%를 저점으로 2008년에는 27.0%로 다시 증가했다. 2009~11년에는 26.1~26.3%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23.5%로 감소했다. 얼마간 오르내림은 있지만 2인 이상 가구 넷 중 하나는 적자가구인 것이다.



○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빈곤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은 1971년 7.2%에서 2009년 15.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0~12년 빈곤율은 14.4~15.0%로 소폭 감소했다.



## 8)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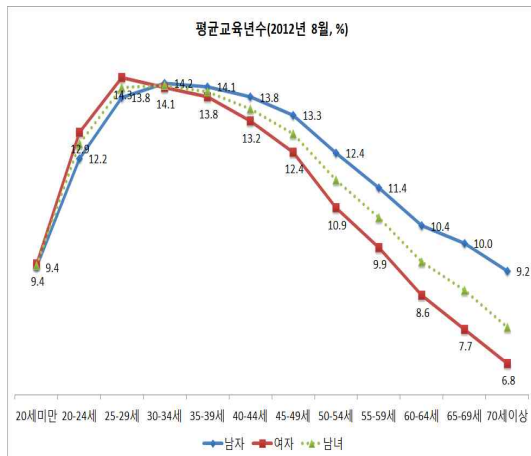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정치권력이 교체된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었다. 고용률과 임금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은 참여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은 이명박 정부보다 참여정부 때 더 심했다.
-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50~60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했고, 고용사정은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 제3장 세대별 고용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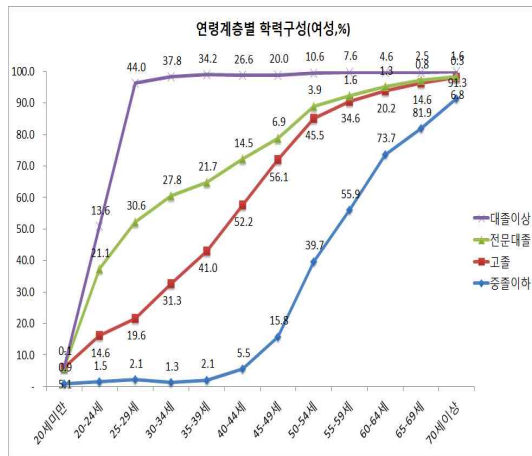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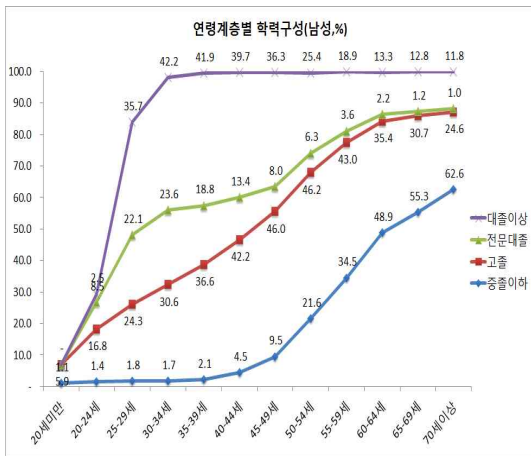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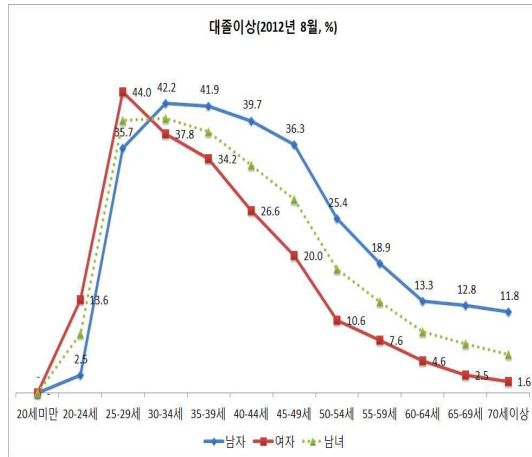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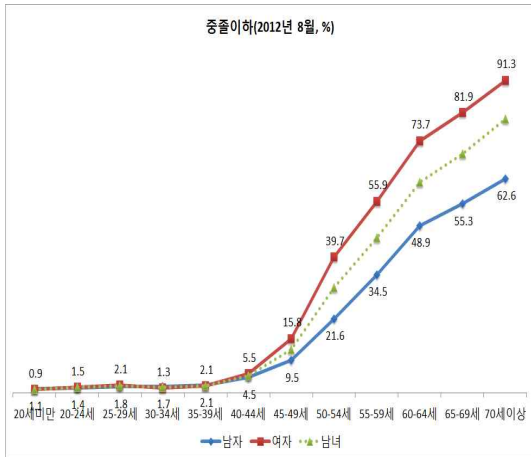
#### 1. 인적 구성

##### 1) 학력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에서 30대는 남녀 모두 평균 교육 연수가 14년이다. 하지만 40대 초반부터 평균 교육연수가 줄고 남녀 간 격차가 확대된다. 50대 초반은 남성 12.4년, 여성 10.9년이고, 60대 초반은 남성 10.4년, 여성 8.6년으로, 나이가 들수록 평균 교육연수가 줄어든다.



- 학력구성을 살펴보면 20~30대는 남녀 모두 중졸이하 저학력층이 1~2%밖에 안 된다. 하지만 50대 초반은 남성의 21.6%, 여성의 39.7%가 중졸이하이고, 60대 초반은 남성의 48.9%, 여성의 73.7%가 중졸이하로, 나이가 들수록 중졸이하 저학력층 비중이 급증한다.
- 30대 초반은 대졸이상 고학력층이 남성은 42.2%, 여성은 37.8%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차이도 크지 않다. 하지만 대졸 남성은 50대 초반 25.4%, 60대 초반 13.3%로 나이가 들수록 똑 떨어지고, 대졸 여성도 20대 후반(44.0%)을 정점으로 50대 초반 10.6%, 60대 초반 4.6%로 똑 떨어진다.
- 따라서 ‘고학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세대 간에 학력별 차이가 뚜렷하다. 20~30대는 남녀 모두 학력수준이 높지만, 50~60대는 학력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성별 연령별 교육연수와 학력분포(2012년 8월, 생산가능인구, 단위:년,%)

	평균 교육연수(년)			학력분포(%)					
				중졸이하			고졸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9.4	9.4	9.4	1.1	0.9	1.0	5.9	5.1	5.5
20-24세	12.2	12.9	12.6	1.4	1.5	1.5	16.8	14.6	15.6
25-29세	13.8	14.3	14.1	1.8	2.1	1.9	24.3	19.6	22.0
30-34세	14.2	14.1	14.1	1.7	1.3	1.5	30.6	31.3	31.0
35-39세	14.1	13.8	14.0	2.1	2.1	2.1	36.6	41.0	38.7
40-44세	13.8	13.2	13.5	4.5	5.5	5.0	42.2	52.2	47.1
45-49세	13.3	12.4	12.9	9.5	15.8	12.6	46.0	56.1	51.0
50-54세	12.4	10.9	11.6	21.6	39.7	30.6	46.2	45.5	45.9
55-59세	11.4	9.9	10.7	34.5	55.9	45.3	43.0	34.6	38.8
60-64세	10.4	8.6	9.5	48.9	73.7	61.6	35.4	20.2	27.6
65-69세	10.0	7.7	8.7	55.3	81.9	69.8	30.7	14.6	21.9
70세 이상	9.2	6.8	7.8	62.6	91.3	79.9	24.6	6.8	13.8
15세 이상	12.3	11.3	11.8	17.2	29.7	23.6	33.0	29.9	3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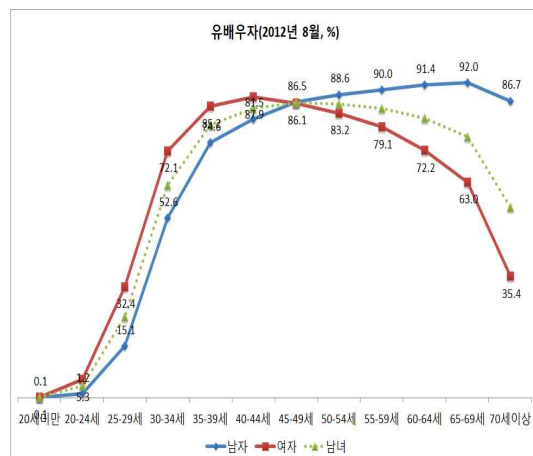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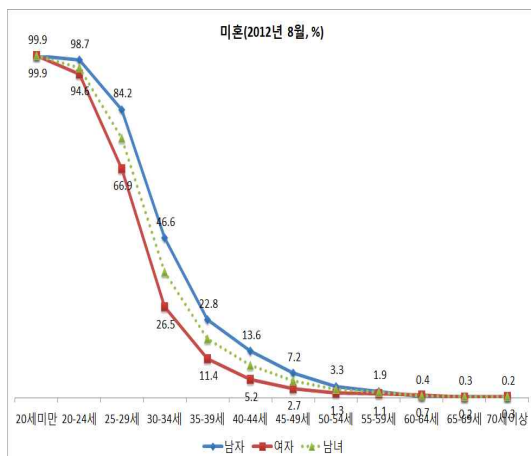
<표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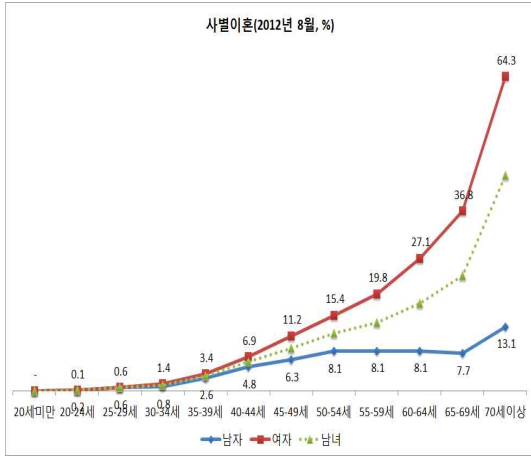
	학력분포(%)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0.1	0.0				93.0	93.9	93.4
20-24세	8.5	21.1	15.5	2.5	13.6	8.6	70.7	49.2	58.8
25-29세	22.1	30.6	26.2	35.7	44.0	39.8	16.1	3.7	10.1
30-34세	23.6	27.8	25.7	42.2	37.8	40.1	1.8	1.7	1.8
35-39세	18.8	21.7	20.2	41.9	34.2	38.1	0.6	1.0	0.8
40-44세	13.4	14.5	13.9	39.7	26.6	33.2	0.3	1.2	0.7
45-49세	8.0	6.9	7.5	36.3	20.0	28.3	0.2	1.1	0.7
50-54세	6.3	3.9	5.1	25.4	10.6	18.0	0.4	0.4	0.4
55-59세	3.6	1.6	2.6	18.9	7.6	13.2	-	0.2	0.1
60-64세	2.2	1.3	1.7	13.3	4.6	8.9	0.3	0.2	0.3
65-69세	1.2	0.8	1.0	12.8	2.5	7.2	-	0.2	0.1
70세 이상	1.0	0.3	0.6	11.8	1.6	5.6	-	-	-
15세 이상	10.0	11.2	10.6	25.9	17.7	21.7	13.9	11.5	1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2) 혼인상태와 가구주 관계

○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미혼자가 줄지만, 40대 초반 남성 미혼자가 13.6%고 여성 미혼자가 5.2%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중장년층 미혼자가 적지 않다. 남성은 60대 후반(92.0%)까지 나이가 들수록 유배우자 비율이 계속 늘지만, 여성은 40대 초반(87.9%)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사별에서 비롯되는데, 50~60대 남성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8% 안팎이지만, 여성은 50대 초반(15.4%)부터 60대 후반(36.8%)까지 사별 또는 이혼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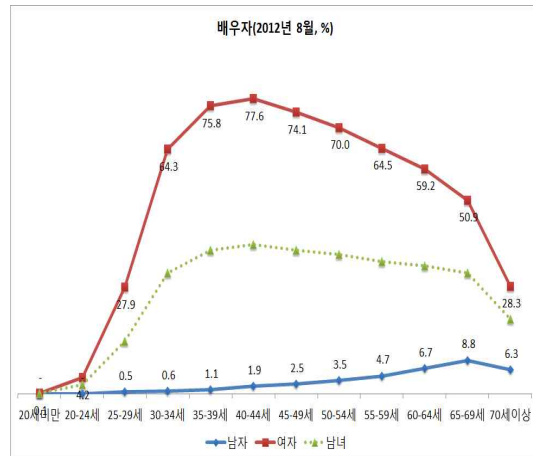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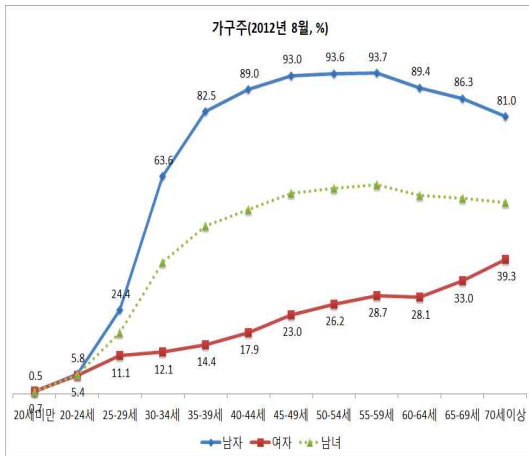


<표3> 성별 연령계층별 혼인상태(2012년 8월, 단위:%)

	미혼			유배우자			사별이별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99.9	99.9	99.9	0.1	0.1	0.1			
20-24세	98.7	94.6	96.5	1.2	5.3	3.4	0.2	0.1	0.1
25-29세	84.2	66.9	75.8	15.1	32.4	23.6	0.6	0.6	0.6
30-34세	46.6	26.5	36.7	52.6	72.1	62.2	0.8	1.4	1.1
35-39세	22.8	11.4	17.2	74.6	85.2	79.8	2.6	3.4	3.0
40-44세	13.6	5.2	9.5	81.5	87.9	84.7	4.8	6.9	5.9
45-49세	7.2	2.7	5.0	86.5	86.1	86.3	6.3	11.2	8.7
50-54세	3.3	1.3	2.3	88.6	83.2	85.9	8.1	15.4	11.8
55-59세	1.9	1.1	1.5	90.0	79.1	84.5	8.1	19.8	14.0
60-64세	0.4	0.7	0.5	91.4	72.2	81.6	8.1	27.1	17.9
65-69세	0.3	0.2	0.3	92.0	63.0	76.2	7.7	36.8	23.6
70세 이상	0.2	0.3	0.2	86.7	35.4	55.8	13.1	64.3	44.0
15세 이상	31.2	24.1	27.6	63.9	59.9	61.8	4.9	16.0	1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사별 또는 이혼으로 여성 단신 가구가 늘면서 여성 가구주 비율은 30대 초반 12.1%, 40대 초반 17.9%, 50대 초반 26.2%, 60대 초반 28.1%로 나이가 들수록 늘고 있다. 이처럼 여성 가구주 비율이 늘면서 여성 배우자 비율은 40대 초반 (77.6%)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표4> 성별 연령계층별 가구주관계(2012년 8월, 단위:%)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0.5	0.7	0.6		0.1	0.1	99.5	99.2	99.4
20-24세	5.8	5.4	5.6		4.2	2.3	94.2	90.4	92.1
25-29세	24.4	11.1	17.9	0.5	27.9	13.9	75.1	61.0	68.2
30-34세	63.6	12.1	38.3	0.6	64.3	31.8	35.8	23.6	29.8
35-39세	82.5	14.4	49.0	1.1	75.8	37.8	16.4	9.9	13.2
40-44세	89.0	17.9	53.9	1.9	77.6	39.3	9.1	4.5	6.8
45-49세	93.0	23.0	58.5	2.5	74.1	37.7	4.5	2.9	3.7
50-54세	93.6	26.2	60.0	3.5	70.0	36.7	2.9	3.8	3.4
55-59세	93.7	28.7	61.0	4.7	64.5	34.7	1.6	6.8	4.2
60-64세	89.4	28.1	58.0	6.7	59.2	33.6	3.9	12.7	8.4
65-69세	86.3	33.0	57.2	8.8	50.9	31.8	4.9	16.1	11.0
70세 이상	81.0	39.3	55.8	6.3	28.3	19.6	12.7	32.4	24.6
15세 이상	68.3	20.2	43.7	2.7	51.1	27.4	29.0	28.7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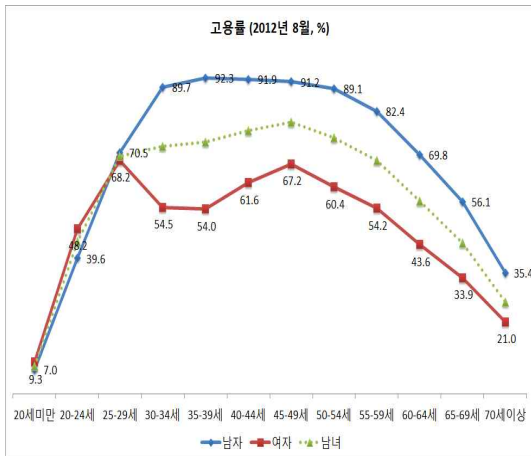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2. 주요 고용지표

### 1) 고용률<sup>2)</sup>

- 20대는 남녀 모두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따라서 고용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인데, 남성은 20대 초반 39.6%에서 20대 후반 70.5%로 늘고, 여성은 48.2%에서 68.2%로 는다. 노동시장 진입기인 20대에는 남녀 간에 고용률 차이도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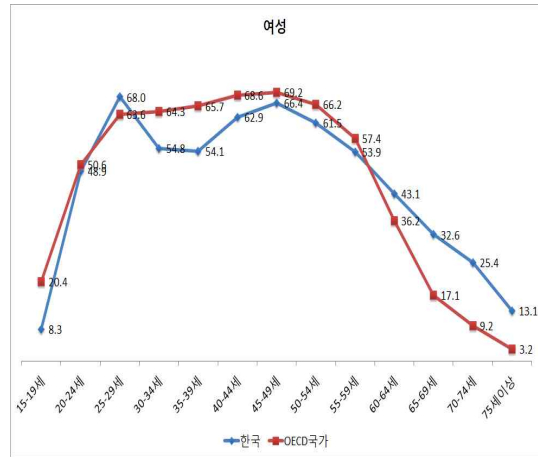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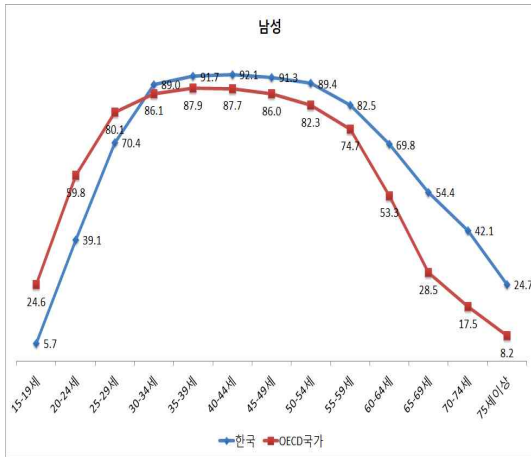
2) 2012년 8월 취업자는 2,486만 명이고,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는 4,167만 명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 100'으로 계산하므로 59.7%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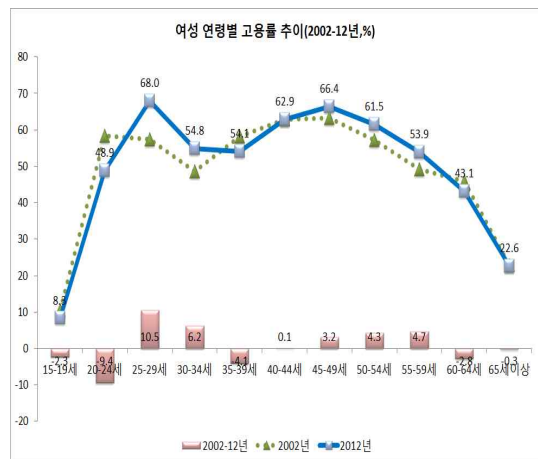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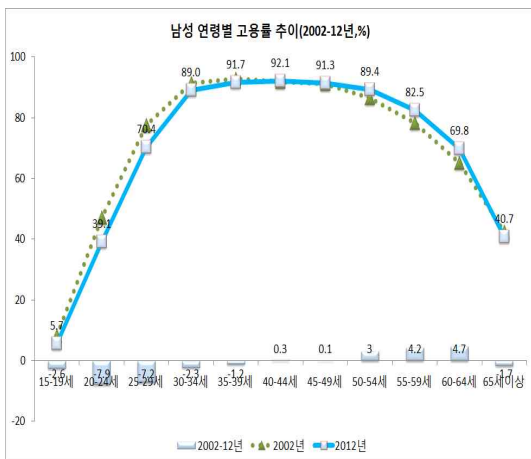
- 30~40대 남성 고용률은 90~92%로 매우 높다. 남성에게 30~40대는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정착기라 할 수 있다.
- 여성은 20대 후반(68.2%)을 정점으로 30대 고용률은 54%로 툭 떨어진다. 이는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여성에게 30대는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 30대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은 40대 초반에는 61.6%, 40대 후반에는 67.2%로 다시 높아진다. 결국 30~40대에 여성 고용률은 M자 곡선을 그리며, 남녀 간에 고용률 차이가 뚜렷하다.
- 50~60대는 노동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로 전환해 가는 시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아, 노동생활과 은퇴생활 모두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50대 초반부터 남녀 모두 고용률이 하락세로 돌아서지만, 60대 후반에도 남성은 56.1%, 여성은 33.9%로 고용률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고용률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남자 고용률은 20대만 한국이 낮고 30대 이후는 한국이 높다. 여자 고용률은 50대까지 한국이 낮지만 20대 후반과 60대 이후는 한국이 높다. 특히 60대 후반 노인층에서 한국의 고용률(남자 54.4%, 여자 32.6%)이 OECD 회원국(남자 28.5%, 여자 17.1%)보다 크게 높다<sup>3)</sup>. 이처럼 한국에서 노인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그만큼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3) OECD.stat에서 2013년 7월 19일 추출.





- 2002~12년 성별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남성 고용률은 20~30대는 감소하고 50~60대는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7%p 이상 감소했고,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은 4%p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20대 초반과 30대 후반, 60대 고용률은 감소하고, 다른 연령층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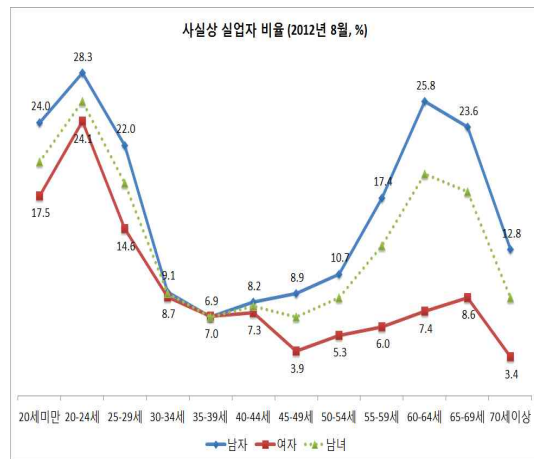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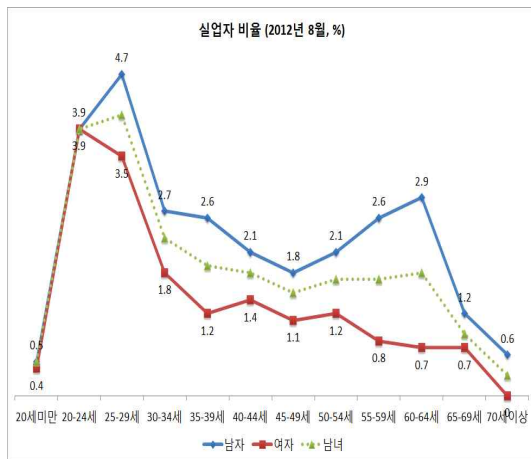


2) 실업자 비율4)

○ 통계청이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 비율은 남녀 모두 20대에 가장 높고, 30~40대엔 나이가 들수록 계속 낮아진다. 20대 초반엔 남녀 모두 3.9%고, 20대 후반엔 남성은 4.7%, 여성은 3.5%다. 여성은 50~60대에도 계속 낮아지지만, 남성은 50대 초반(2.1%)부터 60대 초반(2.9%) 사이 계속 늘어난다.

○ 사실상 실업자 비율5)도 공식 실업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20대에 가장 높다. 20대 초반 남성은 28.3%, 여성은 24.1%고, 20대 후반 남성은 22.0%, 여성은 14.6%로, 공식 실업자 비율보다 4~7배 높다. 30~40대엔 남녀 모두 사실상 실업자 비율이 낮아지지만, 남성은 30대 후반(6.9%), 여성은 40대 후반(3.9%)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 50대 남성은 11~17%로 높아지고, 60대 남성은 24~26%로 20대만큼 높아진다. 여성도 50대 초반(5.3%)부터 60대 후반(8.6%)까지 계속 높아진다.

○ 이상은 5060세대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정년 등을 이유로 밀려나고, 노후생활은 준비되지 않아 다시 구직활동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4) 통상적으로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으로 계산한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2,563만 명이고 실업자는 76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3.0%가 된다. 여기서 실업자비율은 고용률과 분모를 통일 시키기 위해 '실업자÷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으로 계산했다. 2012년 8월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4,167만 명이고 실업자는 76만 명이므로 실업자비율은 1.8%가 된다.

5) 사실상 실업자는 '실업자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쉬었음 응답자'로 정의했고, 사실상 실업자 비율은 '사실상 실업자÷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으로 계산했다.

<표5> 성별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012년 8월, 단위:%)

	고용률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실업자 비율			사실상 실업자 비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7.0	9.3	8.1	92.4	90.2	91.4	0.5	0.4	0.5	24.0	17.5	20.5
20-24세	39.6	48.2	44.3	56.6	47.8	51.8	3.9	3.9	3.9	28.3	24.1	25.8
25-29세	70.5	68.2	69.4	24.8	28.4	26.5	4.7	3.5	4.1	22.0	14.6	18.6
30-34세	89.7	54.5	72.4	7.6	43.7	25.3	2.7	1.8	2.3	9.1	8.7	9.0
35-39세	92.3	54.0	73.5	5.1	44.8	24.6	2.6	1.2	1.9	6.9	7.0	6.9
40-44세	91.9	61.6	76.9	6.0	37.0	21.3	2.1	1.4	1.8	8.2	7.3	7.9
45-49세	91.2	67.2	79.3	7.1	31.7	19.2	1.8	1.1	1.5	8.9	3.9	6.9
50-54세	89.1	60.4	74.8	8.8	38.4	23.5	2.1	1.2	1.7	10.7	5.3	8.6
55-59세	82.4	54.2	68.2	14.9	45.0	30.1	2.6	0.8	1.7	17.4	6.0	13.2
60-64세	69.8	43.6	56.3	27.4	55.7	41.9	2.9	0.7	1.8	25.8	7.4	19.5
65-69세	56.1	33.9	43.9	42.8	65.4	55.1	1.2	0.7	0.9	23.6	8.6	17.9
70세 이상	35.4	21.0	26.7	64.0	79.0	73.0	0.6	0.0	0.3	12.8	3.4	8.6
15-64세	75.1	53.3	64.3	24.4	49.0	36.7	2.5	1.6	2.1	13.2	9.3	11.7
15세 이상	71.2	48.6	59.7	26.5	50.0	38.5	2.3	1.4	1.8	13.6	9.0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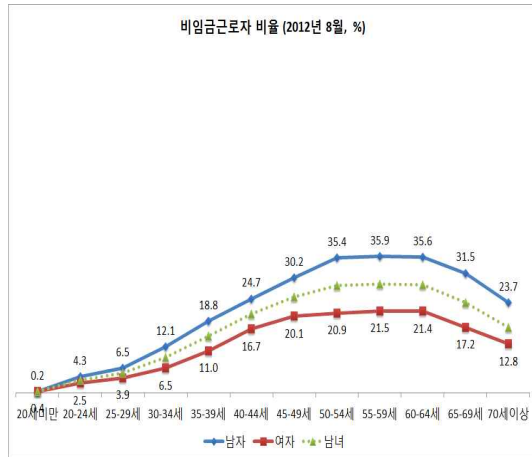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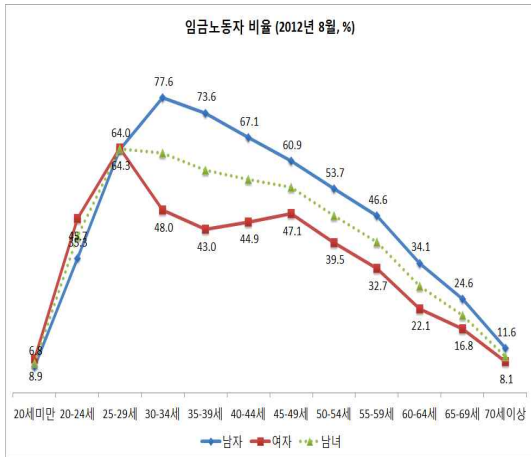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주: 모든 비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임.

### 3) 임금노동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sup>6)</sup>

- 20대 후반 임금노동자 비율은 남자 64.0%, 여자 64.3%로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 남성은 30대 초반(77.6%), 여성은 20대 후반(64.3%)을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남녀 간에 격차가 벌어진다. 특히 여성은 30대에 20%p 이상 줄었다가 40대에 4%p 정도 늘어나는데, 이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30대에 임금노동자 생활을 중단한 여성들이 임금노동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임금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말해준다.
-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늘어난다. 50대와 60대 초반에서 남자는 35~36%, 여자는 21~22%로 가장 많다. 50대까지는 임금노동자가 많지만, 60대 이후는 비임금근로자가 많다. 한국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임금노동자 노릇을 더 이상 하기 힘든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고용형태인 것이다.

6) 취업자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된다. 임금노동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임금노동자 비율은 '임금노동자 ÷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 × 100'으로 계산하고,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비임금근로자 ÷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 × 100'으로 계산했다.



<표6> 성별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012년 8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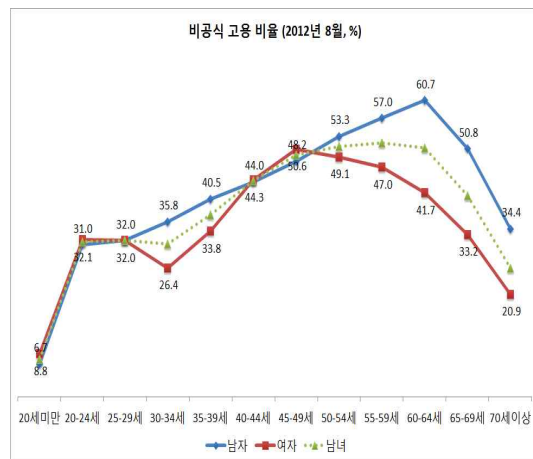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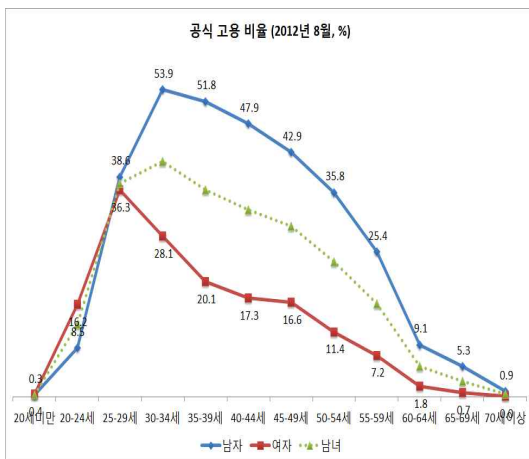
	임금노동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공식고용 비율			비공식 고용 비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6.8	8.9	7.8	0.2	0.4	0.3	0.3	0.4	0.4	6.7	8.8	7.7
20-24세	35.3	45.7	41.0	4.3	2.5	3.3	8.5	16.2	12.7	31.0	32.1	31.6
25-29세	64.0	64.3	64.1	6.5	3.9	5.2	38.6	36.3	37.4	32.0	32.0	32.0
30-34세	77.6	48.0	63.1	12.1	6.5	9.4	53.9	28.1	41.2	35.8	26.4	31.2
35-39세	73.6	43.0	58.5	18.8	11.0	14.9	51.8	20.1	36.2	40.5	33.8	37.2
40-44세	67.1	44.9	56.1	24.7	16.7	20.8	47.9	17.3	32.7	44.0	44.3	44.1
45-49세	60.9	47.1	54.1	30.2	20.1	25.2	42.9	16.6	29.9	48.2	50.6	49.4
50-54세	53.7	39.5	46.6	35.4	20.9	28.2	35.8	11.4	23.6	53.3	49.1	51.2
55-59세	46.6	32.7	39.6	35.9	21.5	28.6	25.4	7.2	16.3	57.0	47.0	52.0
60-64세	34.1	22.1	27.9	35.6	21.4	28.3	9.1	1.8	5.4	60.7	41.7	50.9
65-69세	24.6	16.8	20.3	31.5	17.2	23.7	5.3	0.7	2.8	50.8	33.2	41.2
70세 이상	11.6	8.1	9.5	23.7	12.8	17.2	0.9	0.0	0.4	34.4	20.9	26.3
15-64세	54.4	40.6	47.5	20.7	12.7	16.7	34.5	16.2	25.4	43.4	39.2	41.3
15세 이상	49.8	35.7	42.6	21.4	13.0	17.1	30.4	13.5	21.8	40.8	35.1	3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4) 공식고용과 비공식고용 비율

-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과 고용주를 공식고용으로 정의하고, 5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와 5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과 무급가족종사자를 비공식고용으로 정의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공식고용은 907만 명(21.8%)이고, 비공식고용은 1,579만 명(37.9%)이다.
- 20대 후반 공식고용 비율은 남자 38.6%, 여자 36.3%로 거의 같다. 남성은 30대 초반(53.9%), 여성은 20대 후반(36.3%)을 정점으로 공식고용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남녀 간 격차도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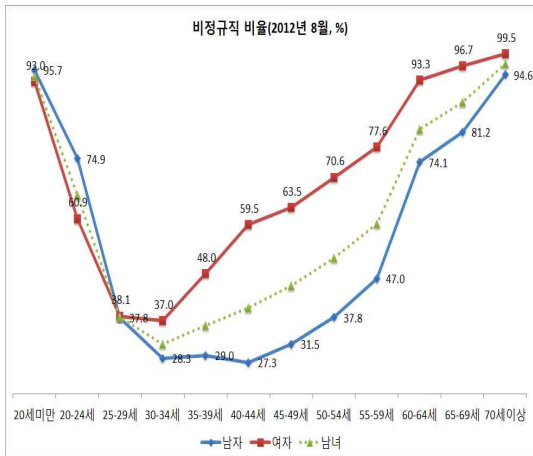
-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비공식고용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남성은 20대 후반(32.0%)부터 60대 초반(60.7%)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여성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30대 초반(26.4%)을 저점으로 40대 후반(50.6%)까지 가파르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만 공식고용이 비공식고용보다 많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비공식고용이 공식고용보다 많다.



### 5) 비정규직 비율<sup>7)</sup>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에서 20대 초반 비정규직 비율은 남자 74.9%, 여자 60.9%로 매우 높다. 하지만 20대 후반에는 남자 37.8%, 여자 38.1%로 푹 떨어지고 남녀 차이가 없다.
- 30~40대 남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27~32%로 낮지만, 50~60대 남성은 50대 초반 37.8%, 50대 후반 47.0%, 60대 초반 74.1%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여성은 20대 후반(38.1%)과 30대 초반(37.0%)을 저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40대 초반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59.5%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50대 후반 여성은 77.6%로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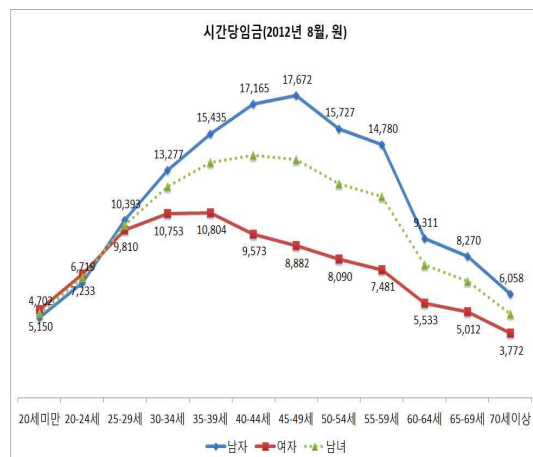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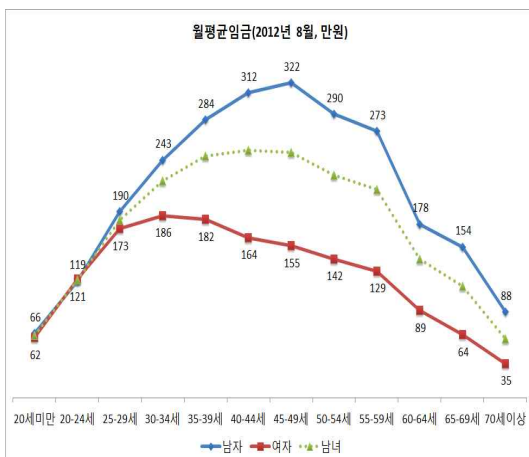
7)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고용지표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실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근로자, 공식고용, 비공식고용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 비해, 여기서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비정규직÷임금노동자×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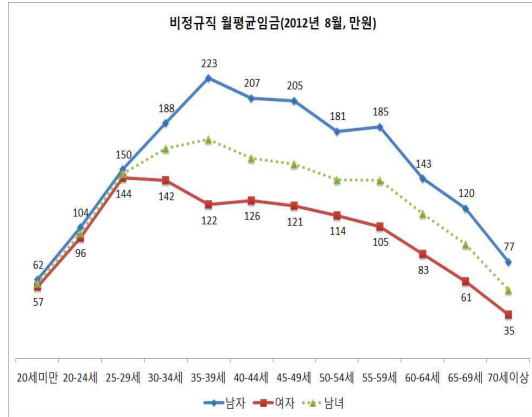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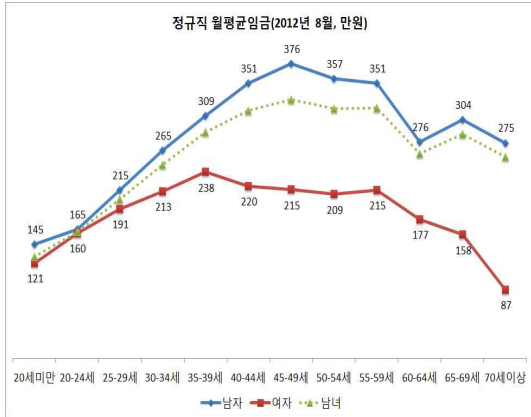


### 3. 임금

#### 1) 임금수준

○ 2012년 8월 현재 월평균임금은 남성은 40대 후반(322만원), 여성은 30대 초반(186만원)을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하락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도 남성은 40대 후반(1만 8천원), 여성은 30대(1만 800원)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정규직은 남성은 40대 후반(376만원), 여성은 30대 후반(238만원)을 정점으로 월평균임금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은 남성은 30대 후반(223만원), 여성은 20대 후반(144만원)을 정점으로 월평균임금이 하락한다. 20~40대는 나이가 들면 임금이 높아지지만, 50~60대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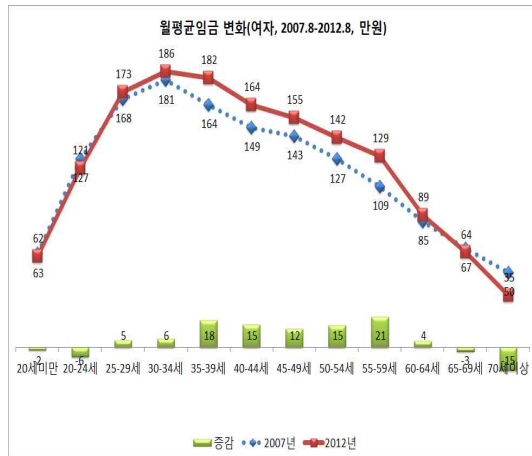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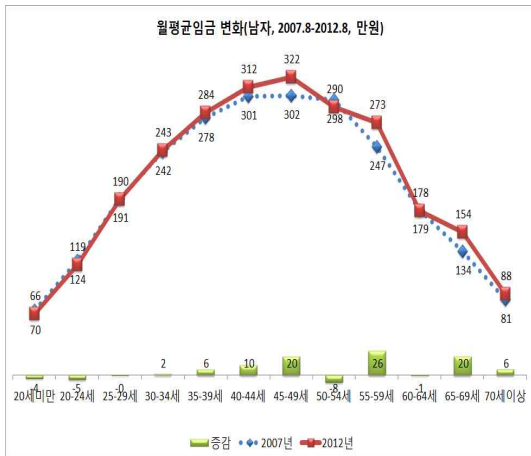


<표7> 성별 연령계층별 임금수준(2012년 8월, 단위: 만원, 원)

	월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66	62	64	145	121	129	62	57	60	4,702	5,150	4,950
20-24세	119	121	120	165	160	161	104	96	100	6,719	7,233	7,034
25-29세	190	173	182	215	191	203	150	144	147	10,393	9,810	10,108
30-34세	243	186	222	265	213	247	188	142	167	13,277	10,753	12,335
35-39세	284	182	247	309	238	288	223	122	175	15,435	10,804	13,764
40-44세	312	164	253	351	220	316	207	126	160	17,165	9,573	14,165
45-49세	322	155	251	376	215	330	205	121	155	17,672	8,882	13,903
50-54세	290	142	227	357	209	319	181	114	142	15,727	8,090	12,497
55-59세	273	129	213	351	215	320	185	105	142	14,780	7,481	11,753
60-64세	178	89	142	276	177	261	143	83	115	9,311	5,533	7,780
65-69세	154	64	114	304	158	286	120	61	91	8,270	5,012	6,800
70세 이상	88	35	61	275	87	257	77	35	55	6,058	3,772	4,877
15세 이상	256	150	210	312	207	277	169	111	138	13,997	8,787	11,7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5년 실질임금 인상액(율)은 5만원 (2.7%)밖에 안 된다. 남자는 8만원(3.1%), 여자는 5만원(3.4%) 인상되었다.



<표8> 성별 연령계층별 실질임금 변화(2007-2012년 8월, 단위: 만원, %)

	2007년 8월 임금			2012년 8월 임금			증감액(만원)			증가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70	63	66	66	62	64	-4	-2	-3	-5.1	-2.8	-4.1
20-24세	124	127	126	119	121	120	-5	-6	-6	-3.7	-5.0	-4.6
25-29세	191	168	180	190	173	182	-0	5	2	-0.2	3.0	1.0
30-34세	242	181	220	243	186	222	2	6	2	0.7	3.3	1.0
35-39세	278	164	237	284	182	247	6	18	11	2.2	11.2	4.5
40-44세	301	149	240	312	164	253	10	15	14	3.5	10.3	5.7
45-49세	302	143	237	322	155	251	20	12	14	6.6	8.7	5.9
50-54세	298	127	231	290	142	227	-8	15	-4	-2.6	11.6	-1.5
55-59세	247	109	197	273	129	213	26	21	17	10.6	19.0	8.5
60-64세	179	85	142	178	89	142	-1	4	-1	-0.6	5.0	-0.4
65-69세	134	67	107	154	64	114	20	-3	7	15.1	-4.1	6.5
70세이상	81	50	66	88	35	61	6	-15	-6	8.0	-30.7	-8.9
전체	248	145	205	256	150	210	8	5	5	3.1	3.4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7년과 2012년 8월 원자료

주: 2007년 8월 임금은 201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조정한 실질임금임.

## 2) 저임금-고임금 계층<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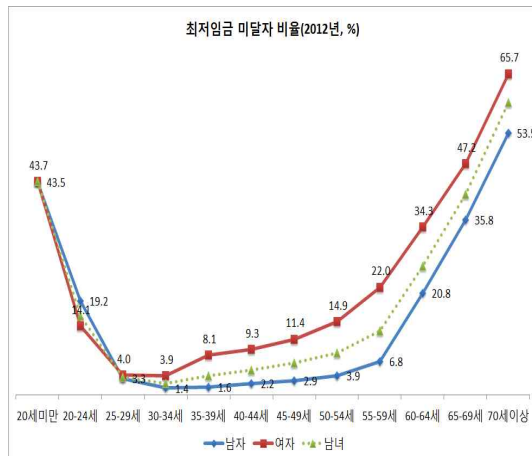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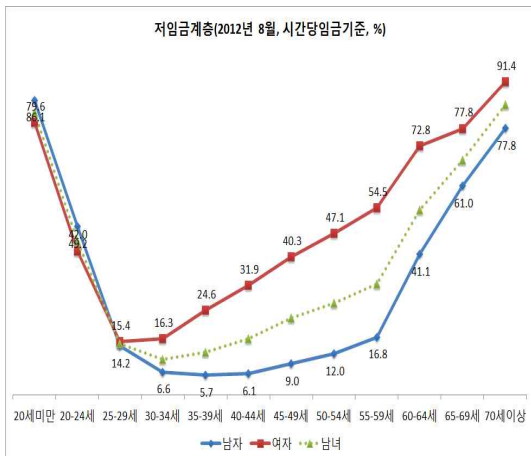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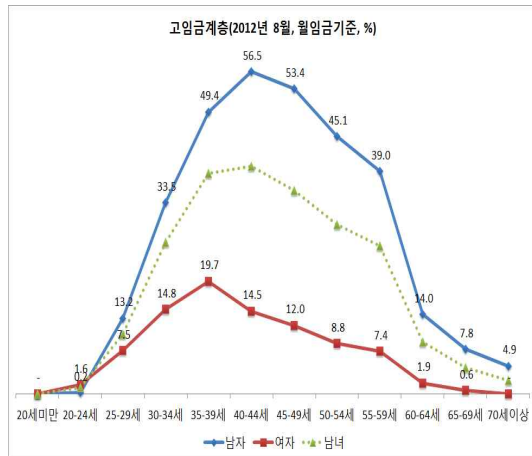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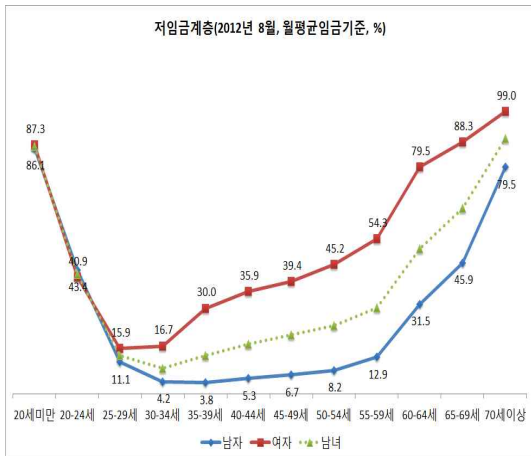
○ 30~40대 남자는 저임금계층이 4~7%(월평균임금 기준)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대 초반은 저임금계층이 43.4%고, 60대 초반은 31.5%, 60대 후반은 45.9%로, 30대 후반(3.8%)을 저점으로 나이가 많거나 적을수록 저임금계층이 늘어나는 U자를 그리고 있다. 여성은 20대 후반(15.9%)과 30대 초반(16.7%)을 저점으로 V자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 40대 남자는 절반 이상이 고임금계층이다. 남자는 40대 초반(56.5%), 여자는 30대 후반(19.7%)을 정점으로 고임금계층이 감소하고 있다.

○ 30~40대 남자는 최저임금 미달 자가 1.4~2.9%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대 초반은 19.2%, 60대 초반은 20.8%, 60대 후반은 35.8%로, 나이가 적거나 많을수록 늘어나는 U자를 그리고 있다. 여성도 20대 후반(4.0%)과 30대 초반(3.9%)을 저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최저임금 미달 자가 늘어나는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8)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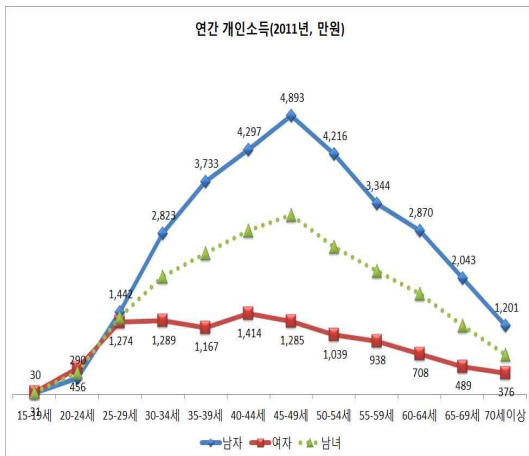
<표9> 성별 연령별 저임금-고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2012년 8월,단위:%)

	월평균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저임금계층			최저임금 미달자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 미만	86.1	87.3	86.8	-	-	-	86.1	79.6	82.5	43.5	43.7	43.6
20-24세	43.4	40.9	41.9	0.2	1.6	1.0	49.2	42.0	44.8	19.2	14.1	16.1
25-29세	11.1	15.9	13.4	13.2	7.5	10.4	14.2	15.4	14.8	3.3	4.0	3.6
30-34세	4.2	16.7	8.9	33.5	14.8	26.5	6.6	16.3	10.2	1.4	3.9	2.3
35-39세	3.8	30.0	13.3	49.4	19.7	38.7	5.7	24.6	12.5	1.6	8.1	3.9
40-44세	5.3	35.9	17.4	56.5	14.5	39.9	6.1	31.9	16.3	2.2	9.3	5.0
45-49세	6.7	39.4	20.7	53.4	12.0	35.7	9.0	40.3	22.4	2.9	11.4	6.5
50-54세	8.2	45.2	23.9	45.1	8.8	29.7	12.0	47.1	26.8	3.9	14.9	8.6
55-59세	12.9	54.3	30.1	39.0	7.4	25.9	16.8	54.5	32.5	6.8	22.0	13.1
60-64세	31.5	79.5	50.9	14.0	1.9	9.1	41.1	72.8	53.9	20.8	34.3	26.3
65-69세	45.9	88.3	65.1	7.8	0.6	4.5	61.0	77.8	68.6	35.8	47.2	41.0
70세 이상	79.5	99.0	89.6	4.9	-	2.3	77.8	91.4	84.9	53.5	65.7	59.8
15세 이상	12.5	38.7	23.7	37.5	10.1	25.7	15.5	37.1	24.8	6.3	13.9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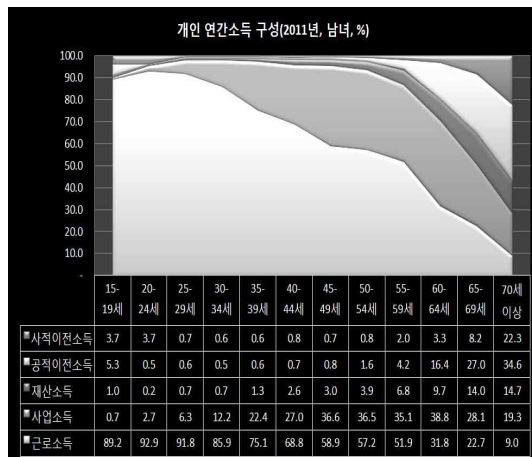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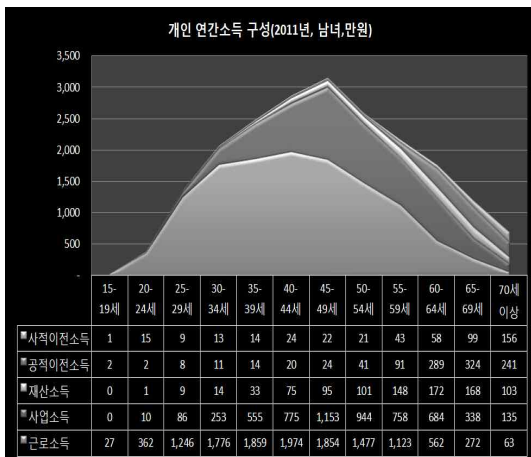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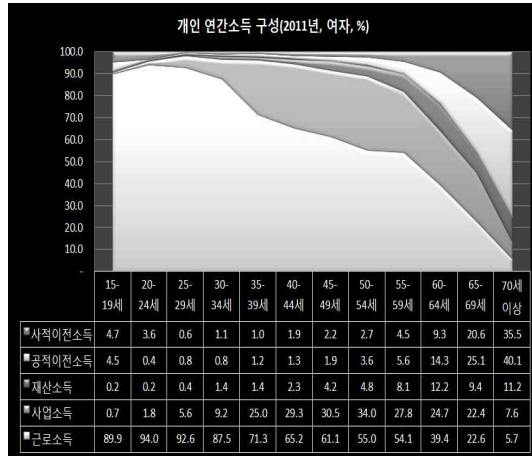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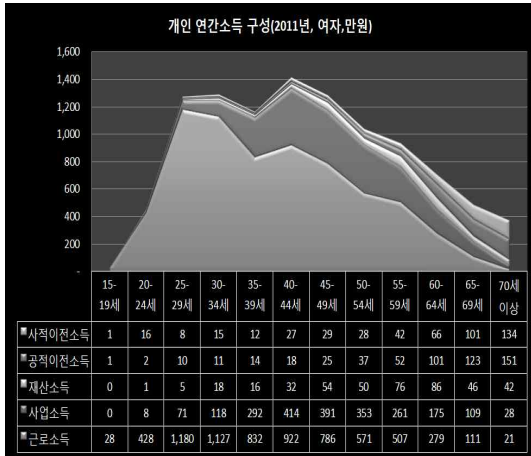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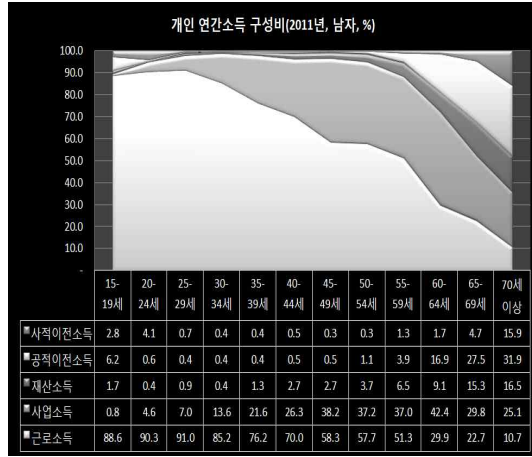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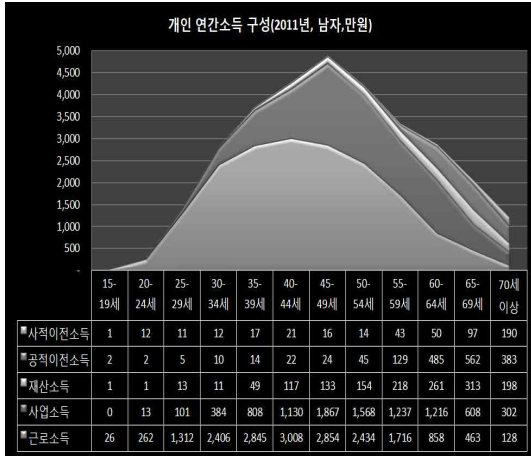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2년 8월 원자료

#### 4) 개인소득

-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성별 연령계층별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 후반(4,893만원)을 정점으로 가파른 산을 그리고, 여성은 40대 초반(1,414만원)을 정점으로 하면서도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 남성은 개인소득 중 근로소득(62.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업소득(29.2%), 재산소득(3.9%), 공적 이전소득(3.6%), 사적 이전소득(1.2%) 순이다. 여성도 근로소득(65.8%)이 가장 많고 사업소득(21.6%), 공적 이전소득(4.7%), 사적 이전소득(4.2%), 재산소득(3.7%) 순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인소득의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60~70대 노인들은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60대 후반 남성은 소득의 27.5%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25.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70대 남성은 소득의 31.9%가 공적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소득의 40.1%가 공적 이전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까지 합치면 70대 남성은 소득의 절반(47.8%)이 이전소득이고, 여성은 75.6%가 이전소득이다. 그만큼 노후생활에서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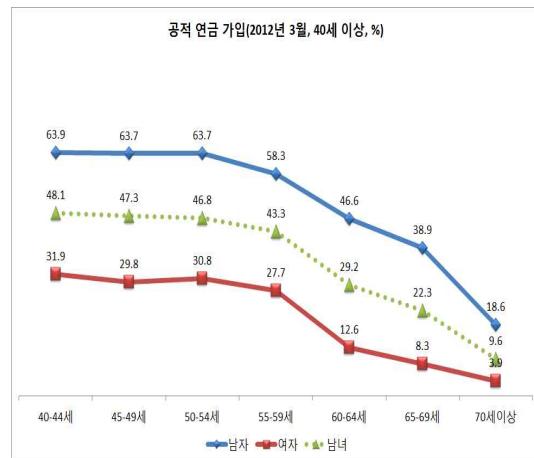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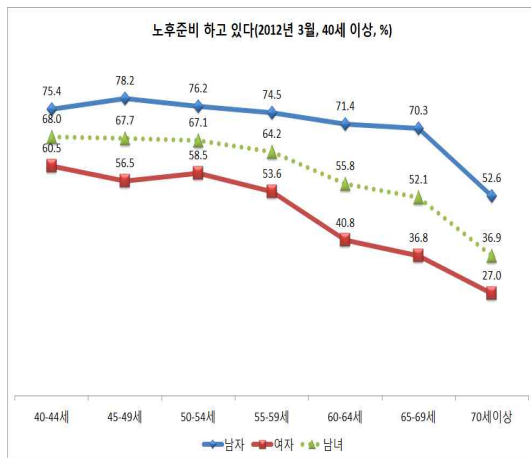
<표10> 성별 연령계층별 소득 구성(2011년)

성	연령	금액(만원)						구성비(%)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남자	15-19세	30	26	0	1	2	1	100.0	88.6	0.8	1.7	6.2	2.8
	20-24세	290	262	13	1	2	12	100.0	90.3	4.6	0.4	0.6	4.1
	25-29세	1,442	1,312	101	13	5	11	100.0	91.0	7.0	0.9	0.4	0.7
	30-34세	2,823	2,406	384	11	10	12	100.0	85.2	13.6	0.4	0.4	0.4
	35-39세	3,733	2,845	808	49	14	17	100.0	76.2	21.6	1.3	0.4	0.4
	40-44세	4,297	3,008	1,130	117	22	21	100.0	70.0	26.3	2.7	0.5	0.5
	45-49세	4,893	2,854	1,867	133	24	16	100.0	58.3	38.2	2.7	0.5	0.3
	50-54세	4,216	2,434	1,568	154	45	14	100.0	57.7	37.2	3.7	1.1	0.3
	55-59세	3,344	1,716	1,237	218	129	43	100.0	51.3	37.0	6.5	3.9	1.3
	60-64세	2,870	858	1,216	261	485	50	100.0	29.9	42.4	9.1	16.9	1.7
	65-69세	2,043	463	608	313	562	97	100.0	22.7	29.8	15.3	27.5	4.7
	70세이상	1,201	128	302	198	383	190	100.0	10.7	25.1	16.5	31.9	15.9
전체	2,849	1,772	831	110	102	34	100.0	62.2	29.2	3.9	3.6	1.2	
여자	15-19세	31	28	0	0	1	1	100.0	89.9	0.7	0.2	4.5	4.7
	20-24세	456	428	8	1	2	16	100.0	94.0	1.8	0.2	0.4	3.6
	25-29세	1,274	1,180	71	5	10	8	100.0	92.6	5.6	0.4	0.8	0.6
	30-34세	1,289	1,127	118	18	11	15	100.0	87.5	9.2	1.4	0.8	1.1
	35-39세	1,167	832	292	16	14	12	100.0	71.3	25.0	1.4	1.2	1.0
	40-44세	1,414	922	414	32	18	27	100.0	65.2	29.3	2.3	1.3	1.9
	45-49세	1,285	786	391	54	25	29	100.0	61.1	30.5	4.2	1.9	2.2
	50-54세	1,039	571	353	50	37	28	100.0	55.0	34.0	4.8	3.6	2.7
	55-59세	938	507	261	76	52	42	100.0	54.1	27.8	8.1	5.6	4.5
	60-64세	708	279	175	86	101	66	100.0	39.4	24.7	12.2	14.3	9.3
	65-69세	489	111	109	46	123	101	100.0	22.6	22.4	9.4	25.1	20.6
	70세이상	376	21	28	42	151	134	100.0	5.7	7.6	11.2	40.1	35.5
전체	913	600	197	34	43	39	100.0	65.8	21.6	3.7	4.7	4.2	
남녀	15-19세	30	27	0	0	2	1	100.0	89.2	0.7	1.0	5.3	3.7
	20-24세	390	362	10	1	2	15	100.0	92.9	2.7	0.2	0.5	3.7
	25-29세	1,358	1,246	86	9	8	9	100.0	91.8	6.3	0.7	0.6	0.7
	30-34세	2,067	1,776	253	14	11	13	100.0	85.9	12.2	0.7	0.5	0.6
	35-39세	2,476	1,859	555	33	14	14	100.0	75.1	22.4	1.3	0.6	0.6
	40-44세	2,868	1,974	775	75	20	24	100.0	68.8	27.0	2.6	0.7	0.8
	45-49세	3,148	1,854	1,153	95	24	22	100.0	58.9	36.6	3.0	0.8	0.7
	50-54세	2,583	1,477	944	101	41	21	100.0	57.2	36.5	3.9	1.6	0.8
	55-59세	2,163	1,123	758	148	91	43	100.0	51.9	35.1	6.8	4.2	2.0
	60-64세	1,765	562	684	172	289	58	100.0	31.8	38.8	9.7	16.4	3.3
	65-69세	1,201	272	338	168	324	99	100.0	22.7	28.1	14.0	27.0	8.2
	70세이상	697	63	135	103	241	156	100.0	9.0	19.3	14.7	34.6	22.3
전체	1,852	1,169	504	71	72	36	100.0	63.1	27.2	3.8	3.9	2.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5. 노후준비(40세 이상)

-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자 가운데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사람은 59.9%(남자 72.2%, 여자 48.5%)로, 나머지 40%는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40~50대 남성은 75~78%가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40~50대 여성은 54~61%가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 노후생활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 가입이 가장 많은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37.2%(남자 53.6%, 여자 21.8%)다. 40~50대 남성은 58~64%가 공적연금 가입자고, 40~50대 여성은 28~32%가 공적연금 가입자다. 한데 60~70대 공적연금 수혜자 연령층에서는 가입자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표11> 성별 연령계층별 노후생활 준비(2012년 3월, 단위:%)

성별	연령대	노후생활 준비 방법 (%)									
		있음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선물	부동산	기타	없음
남 자	40-44세	75.4	56.7	7.2	25.8	12.4	15.4	4.3	13.5	.2	24.6
	45-49세	78.2	56.3	7.4	25.8	9.2	16.2	3.9	16.0	.8	21.8
	50-54세	76.2	55.0	8.7	20.0	7.1	12.9	3.5	17.1	1.1	23.8
	55-59세	74.5	49.9	8.4	11.5	7.5	13.1	3.2	19.5	1.8	25.5
	60-64세	71.4	40.3	6.3	7.7	3.4	14.1	2.6	27.5	4.0	28.6
	65-69세	70.3	31.1	7.8	4.2	3.0	14.5	1.3	26.6	6.4	29.7
	70세이상	52.6	13.7	4.9	.7	1.4	11.8	.6	20.9	11.0	47.4
	전체	72.2	46.3	7.3	16.2	7.2	14.1	3.1	18.7	2.9	27.8
여 자	40-44세	60.5	27.8	4.1	24.9	4.2	17.4	1.9	7.0	.2	39.5
	45-49세	56.5	27.2	2.7	20.8	4.2	17.3	1.8	8.2	.6	43.5
	50-54세	58.5	28.3	2.5	17.0	3.3	14.9	2.3	13.1	1.1	41.5

	55-59세	53.6	25.1	2.6	11.0	1.7	13.2	1.3	14.4	1.4	46.4
	60-64세	40.8	11.2	1.4	5.2	1.0	13.1	.7	14.9	2.4	59.2
	65-69세	36.8	7.8	.5	1.8	.6	9.8	.6	12.8	7.1	63.2
	70세이상	27.0	3.3	.6	.3	.2	6.4	.2	8.1	10.2	73.0
	전체	48.5	19.6	2.2	12.8	2.4	13.4	1.3	10.6	3.2	51.5
남 녀	40-44세	68.0	42.4	5.7	25.3	8.3	16.4	3.1	10.3	.2	32.0
	45-49세	67.7	42.2	5.1	23.4	6.8	16.7	2.9	12.2	.7	32.3
	50-54세	67.1	41.3	5.5	18.5	5.1	13.9	2.9	15.0	1.1	32.9
	55-59세	64.2	37.7	5.6	11.3	4.7	13.1	2.3	17.0	1.6	35.8
	60-64세	55.8	25.4	3.8	6.4	2.2	13.6	1.7	21.1	3.2	44.2
	65-69세	52.1	18.5	3.9	2.9	1.7	11.9	.9	19.1	6.8	47.9
	70세이상	36.9	7.3	2.3	.5	.7	8.5	.4	13.1	10.5	63.1
		전체	59.9	32.5	4.7	14.4	4.7	13.7	2.2	14.5	3.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제4장 세대별 생활상태

### 1. 가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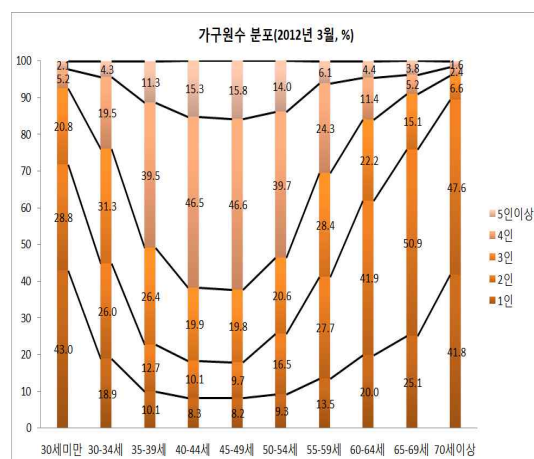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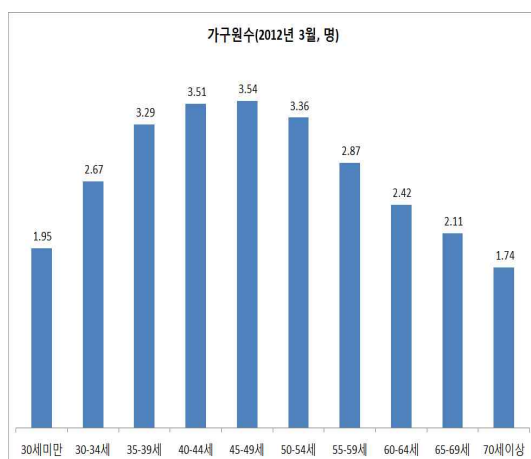
#### 1) 가구원수

○ 가구당 가구원수는 평균 2.86명이다. 가구주가 30세 미만일 때 가구원수는 1.95명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구원수가 늘어나 40대 후반에는 3.54명으로 가장 많다.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가구원수는 줄어드는데, 60대 초반은 2.42명, 60대 후반은 2.11명, 70세 이상은 1.74명이다.

○ 단신가구와 2인 가구는 40대를 저점으로 늘어나고, 4인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40대를 정점으로 줄어든다.

- 단신가구는 40대(8.2~8.3%)를 저점으로 20대는 43.0%, 60대 후반은 25.1%, 70대는 41.8%로 늘어난다. 2인가구도 40대(9.7~10.1%)를 저점으로 20대는 28.8%, 60대 후반은 50.9%, 70대는 47.6%로 늘어난다. 노인 가구는 단신 또는 2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4인 가구는 40대(46.5~46.6%)를 정점으로 20대는 5.2%, 60대 후반은 5.2%로 줄어든다. 5인 가구도 40대(15.3~15.8%)를 정점으로 20대는 2.1%, 60대 후반은 3.8%로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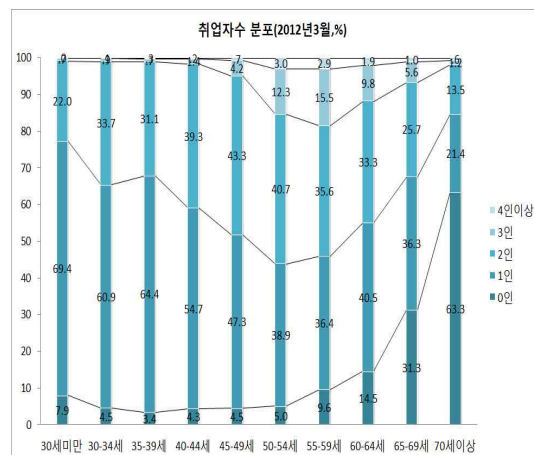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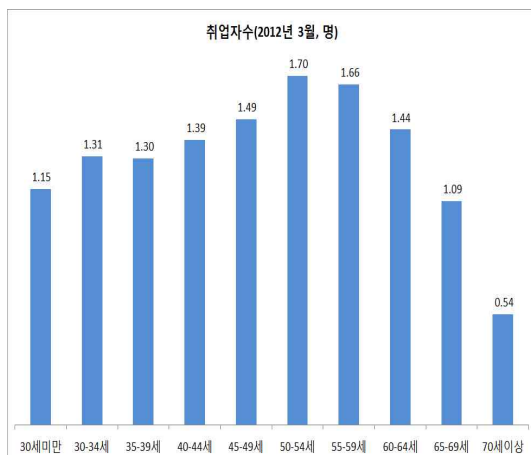
<표12>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2012년 3월, 단위: 명,%)

	평균(명)	분포(%)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30세미만	1.95	43.0	28.8	20.8	5.2	2.1
30-34세	2.67	18.9	26.0	31.3	19.5	4.3
35-39세	3.29	10.1	12.7	26.4	39.5	11.3
40-44세	3.51	8.3	10.1	19.9	46.5	15.3
45-49세	3.54	8.2	9.7	19.8	46.6	15.8
50-54세	3.36	9.3	16.5	20.6	39.7	14.0
55-59세	2.87	13.5	27.7	28.4	24.3	6.1
60-64세	2.42	20.0	41.9	22.2	11.4	4.4
65-69세	2.11	25.1	50.9	15.1	5.2	3.8
70세이상	1.74	41.8	47.6	6.6	2.4	1.6
전체	2.86	17.9	25.3	20.5	27.4	9.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2) 취업자 수

- 가구당 취업자는 평균 1.31명이다. 가구주가 30세 미만일 때 취업자는 1.15명이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 50대 초반에는 1.70명으로 가장 많다. 50대 후반부터 취업자는 줄어드는데, 60대 초반은 1.44명, 60대 후반은 1.09명, 70세 이상은 0.54명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 취업자가 1명인 가구가 44.9%로 가장 많고, 2명인 가구가 32.8%로 다음으로 많다.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가구가 15.7%나 되는데, 30대 후반(3.4%)을 저점으로 50대 후반에는 9.6%, 60대 초반에는 14.5%, 60대 후반에는 31.3%, 70대는 63.3%로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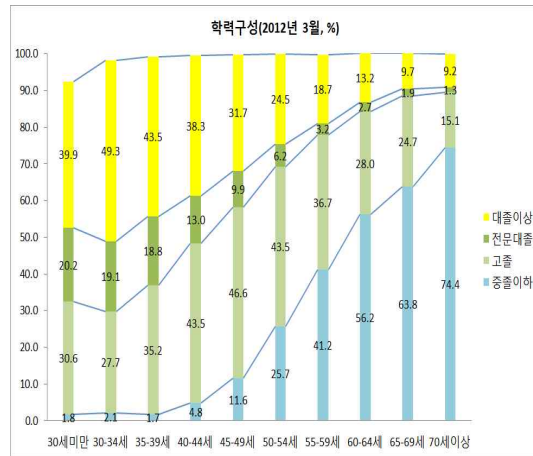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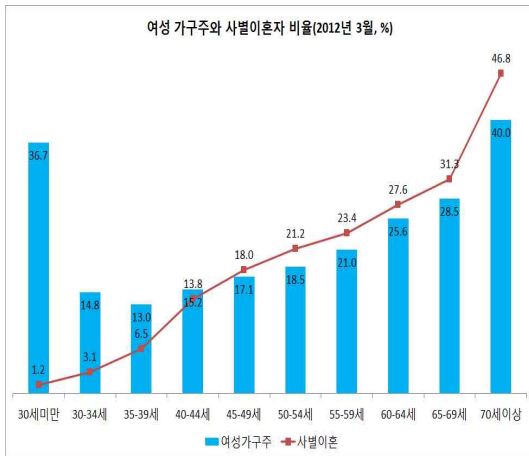
<표13> 가구주 연령별 취업자 수 (2012년 3월, 단위: 명,%)

	취업자 수 평균 (명)	취업자 수 분포(%)					구직자 수(명)	비경제 활동 (명)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30세미만	1.15	7.9	69.4	22.0	.7	.0	.10	.41
30-34세	1.31	4.5	60.9	33.7	.9	.1	.08	.49
35-39세	1.30	3.4	64.4	31.1	.7	.3	.08	.63
40-44세	1.39	4.3	54.7	39.3	1.4	.2	.07	.84
45-49세	1.49	4.5	47.3	43.3	4.2	.7	.09	1.35
50-54세	1.70	5.0	38.9	40.7	12.3	3.0	.13	1.29
55-59세	1.66	9.6	36.4	35.6	15.5	2.9	.15	.98
60-64세	1.44	14.5	40.5	33.3	9.8	1.9	.09	.81
65-69세	1.09	31.3	36.3	25.7	5.6	1.0	.05	.92
70세이상	.54	63.3	21.4	13.5	1.2	.6	.02	1.13
전체	1.31	15.7	44.9	32.8	5.4	1.2	.08	.9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3) 가구주 인적 구성(성, 혼인, 학력)

- 남성 가구주가 77.9%고 여성 가구주가 22.1%다. 여성 가구주는 30대 후반(13.0%)부터 70대(40.0%)까지 계속 증가한다.
-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가 69.7%로 가장 많고, 사별 또는 이혼으로 혼자된 가구주가 21.0%, 미혼자가 9.3%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30대 후반(77.5%)부터 70대(52.7%)까지 계속 줄고, 사별 또는 이혼한 가구주는 60대 초반에는 27.6%, 60대 후반에는 31.3%, 70대에는 46.8%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 가구주 학력은 고졸(34.2%)이 가장 많고, 중졸이하(29.1%), 대졸이상(27.2%), 전문대졸(8.9%) 순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중졸이하가 많고, 젊을수록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이 많다. 20~30대는 중졸이하가 2% 안팎이지만 70대는 74.4%에 이른다. 대졸이상은 30대 초반 49.3%에서 70대에는 9.2%로 줄어든다.



<표14> 가구주 연령별 인적 구성 (2012년 3월, 단위: %)

	가구수	성		혼인상태			학력				
		남자	여자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
30세미만	667	63.3	36.7	67.0	31.8	1.2	1.8	30.6	20.2	39.9	7.5
30-34세	1,403	85.2	14.8	28.0	68.9	3.1	2.1	27.7	19.1	49.3	1.9
35-39세	1,908	87.0	13.0	16.0	77.5	6.5	1.7	35.2	18.8	43.5	0.7
40-44세	2,314	84.8	15.2	9.8	76.4	13.8	4.8	43.5	13.0	38.3	0.4
45-49세	2,373	82.9	17.1	5.4	76.5	18.0	11.6	46.6	9.9	31.7	0.2
50-54세	2,332	81.5	18.5	3.0	75.8	21.2	25.7	43.5	6.2	24.5	0.2
55-59세	1,829	79.0	21.0	2.4	74.2	23.4	41.2	36.7	3.2	18.7	0.2
60-64세	1,358	74.4	25.6	1.3	71.1	27.6	56.2	28.0	2.7	13.2	-
65-69세	1,241	71.5	28.5	1.1	67.6	31.3	63.8	24.7	1.9	9.7	-
70세이상	2,457	60.0	40.0	0.5	52.7	46.8	74.4	15.1	1.3	9.2	-
전체	17,882	77.9	22.1	9.3	69.7	21.0	29.1	34.2	8.9	27.2	0.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4) 주거형태와 주택유형

○ 주거형태는 자가(56.8%), 전세(21.5%), 월세(16.8%), 기타(4.9%) 순이다. 전세는 30대 초반(40.8%)을 정점으로 60대 후반(11.0%)까지 줄고, 자가는 60대 초반(72.9%)까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기타(무상 주택, 무상 사택 등)는 20대(7.8%)와 70대(10.5%)에서 높다.

○ 주택유형은 아파트(47.3%), 단독주택(38.1%),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12.9%) 순이다. 아파트는 30대 후반(63.5%),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20대(23.8%)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줄고, 단독주택은 30대 후반(21.0%)을 저점으로 늘어난다. 30~40대는 아파트 거주자가 절반이 넘고, 60~70대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절반이 넘는다.

<표15> 가구주 연령별 주거형태와 주택유형 (2012년 3월, 단위: %)

	주거형태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 주택사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 세대주택	기타
30세미만	16.5	36.6	39.1	7.8	37.0	36.4	23.8	2.8
30-34세	31.7	40.8	21.2	6.3	22.1	58.2	17.6	2.1
35-39세	45.6	32.2	18.4	3.8	21.0	63.5	14.2	1.4
40-44세	50.8	27.0	17.7	4.5	24.2	60.4	13.9	1.5
45-49세	55.2	22.7	19.1	3.0	31.3	53.9	13.4	1.3
50-54세	61.4	18.1	17.3	3.2	36.4	49.4	13.0	1.3
55-59세	69.7	13.6	14.1	2.6	40.7	44.7	12.2	2.4
60-64세	72.9	11.3	12.6	3.2	50.6	36.9	10.3	2.1
65-69세	72.4	11.0	11.1	5.6	55.6	31.3	11.3	1.8
70세이상	67.2	11.9	10.3	10.5	64.4	26.8	7.6	1.2
전체	56.8	21.5	16.8	4.9	38.1	47.3	12.9	1.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5) 종사상 지위

-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노동자(57.1%), 비임금근로자(24.2%), 비취업자(18.8%) 순이다. 임금노동자는 20대(89.5%)부터 70대(11.0%)까지 나이가 들수록 줄어 들고, 비임금근로자는 20대(4.2%)부터 60대 초반(33.4%)까지 늘어나고, 비취업자는 30대 초반(3.7%)을 저점으로 70대(69.1%)까지 늘어난다.
- 상용직은 30대 초반(74.7%)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고용주는 40대 후반(9.4%)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60대 초반(22.0%)까지 늘고, 자영업자도 60대 초반(29.1%)까지 늘어난다.

<표16> 가구주 연령별 종사상 지위 (2012년 3월, 단위: %)

	종사상 지위 1			종사상 지위 2					
	임금 노동자	비임금 근로자	비 취업자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특수 고용
30세미만	89.5	4.2	6.3	70.8	17.2	1.3	2.8	-	1.5
30-34세	85.2	11.1	3.7	74.7	8.8	4.4	6.7	-	1.7
35-39세	80.2	16.0	3.8	67.1	11.0	5.8	10.2	-	2.2
40-44세	73.5	22.2	4.4	59.5	12.0	7.6	14.5	0.1	1.9
45-49세	66.6	27.9	5.5	48.2	16.1	9.4	18.5	0.0	2.4
50-54세	60.7	32.5	6.8	41.6	17.3	7.7	24.7	0.1	1.8
55-59세	54.9	32.5	12.6	34.4	19.0	7.2	25.4	-	1.5
60-64세	40.7	33.4	25.9	17.8	22.0	4.2	29.1	0.1	0.9
65-69세	29.0	29.2	41.8	10.1	18.2	1.7	27.4	0.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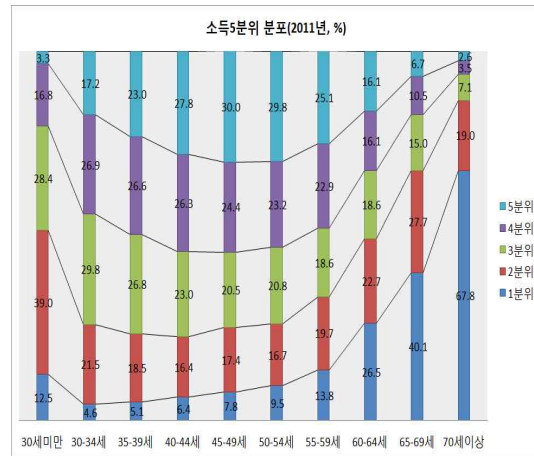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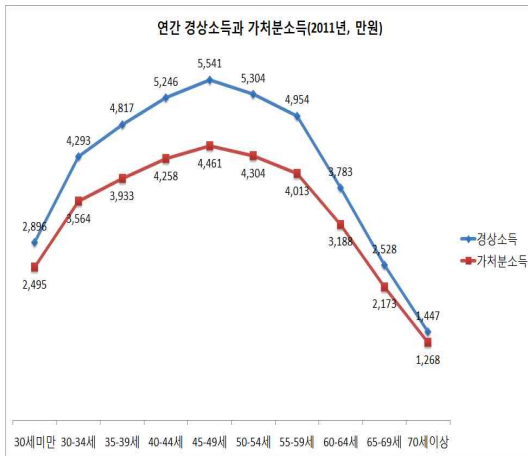
70세이상	11.0	19.9	69.1	2.6	8.2	0.7	19.2	-	0.2
전체	57.1	24.2	18.8	41.1	14.4	5.5	18.6	0.0	1.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2. 가계수지

### 1) 가구소득

- 2011년 한 해 가구당 경상소득은 4,233만원이고, 비소비지출 758만원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3,474만원이다. 경상소득(5,541만원)과 가처분소득(4,461만원) 모두 가구주가 40대 후반일 때 가장 많다.
- 저소득층(소득1분위) 비중은 가구주가 50대 후반일 때 13.8%, 60대 초반일 때 26.5%, 60대 후반일 때 40.1%, 70대일 때 67.8%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고소득층(소득5분위)은 40대 후반(30.0%)과 50대 초반(29.8%)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 근로소득은 30대 후반(3,662만원), 사업소득은 40대 후반(1,906만원), 재산소득은 60대 초반(323만원)을 정점으로 줄고 있다. 이전소득은 60대 초반은 571만원(가구소득의 15.1%), 60대 후반은 671만원(26.5%), 70대 이상은 657만원(45.4%)으로 나이가 들수록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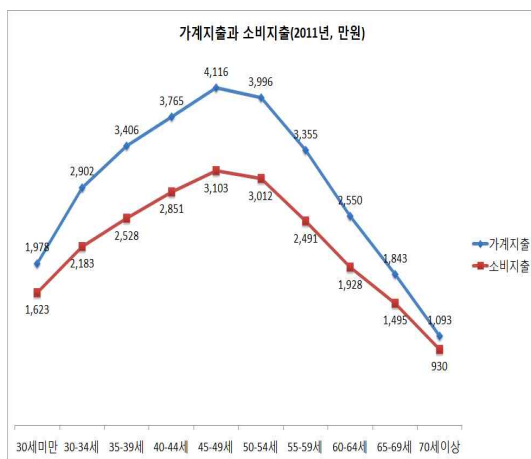
<표17> 가구주 연령별 소득 내역 (2011년, 단위: 만원)

	금액(만원)						구성비(%)					
	경상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경상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30세미만	2,896	2,495	250	22	40	89	100.0	86.2	8.6	0.8	1.4	3.1
30-34세	4,293	3,638	541	33	39	41	100.0	84.7	12.6	0.8	0.9	1.0
35-39세	4,817	3,662	996	64	56	38	100.0	76.0	20.7	1.3	1.2	0.8
40-44세	5,246	3,597	1,416	134	54	46	100.0	68.6	27.0	2.6	1.0	0.9
45-49세	5,541	3,359	1,906	176	60	39	100.0	60.6	34.4	3.2	1.1	0.7
50-54세	5,304	3,262	1,740	182	78	42	100.0	61.5	32.8	3.4	1.5	0.8
55-59세	4,954	2,997	1,442	291	162	63	100.0	60.5	29.1	5.9	3.3	1.3
60-64세	3,783	1,747	1,142	323	473	98	100.0	46.2	30.2	8.5	12.5	2.6
65-69세	2,528	897	652	309	522	149	100.0	35.5	25.8	12.2	20.6	5.9
70세이상	1,447	257	284	249	401	256	100.0	17.8	19.6	17.2	27.7	17.7
전체	4,233	2,642	1,139	185	179	87	100.0	62.4	26.9	4.4	4.2	2.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2) 가계지출

- 2011년 가구당 가계지출은 3,038만원이고, 비소비지출 758만원을 제외한 소비지출은 2,311만원이다. 가구주가 40대 후반일 때 가계지출(4,116만원)과 소비지출(3,103만원), 비소비지출(1,079만원) 모두 가장 많다.
- 소비지출은 식료품비(21.2%), 경조비및기타지출(15.2%), 교육비(11.5%), 주거비(9.6%), 교통비(8.8%), 통신비(5.3%), 의료비(4.4%) 순이고, 비소비지출은 원리금상환(14.0%), 사회보험료(5.6%), 세금과징금(4.5%) 순이다.



<표18> 가구주 연령별 가계지출 내역 (2011년, 단위: 만원)

	지출	소비 지출	식료 품비	주거 비	교육 비	의료 비	교통 비	통신 비	기타 지출	비 소비 지출	세금 과징 금	공적 연금 사회 보험 료	지급 이자 및상 환액
30세미만	1,978	1,623	516	281	57	67	178	156	367	401	75	183	316
30-34세	2,902	2,183	663	294	136	114	274	179	522	728	159	280	523
35-39세	3,406	2,528	729	312	387	121	305	180	494	884	199	305	718
40-44세	3,765	2,851	768	328	603	116	331	199	507	989	272	313	784
45-49세	4,116	3,103	774	349	764	129	351	219	517	1,079	281	315	861
50-54세	3,996	3,012	754	354	580	152	352	212	608	999	244	317	737
55-59세	3,355	2,491	687	309	264	162	324	175	570	941	252	284	780
60-64세	2,550	1,928	598	268	71	140	257	126	467	595	142	157	384
65-69세	1,843	1,495	481	229	30	156	159	88	353	355	85	86	310
70세이상	1,093	930	323	169	18	135	63	45	177	179	49	36	153
전체	3,038	2,311	643	293	348	133	269	162	463	758	190	237	59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표19> 가구주 연령별 가계지출 내역 구성비 (201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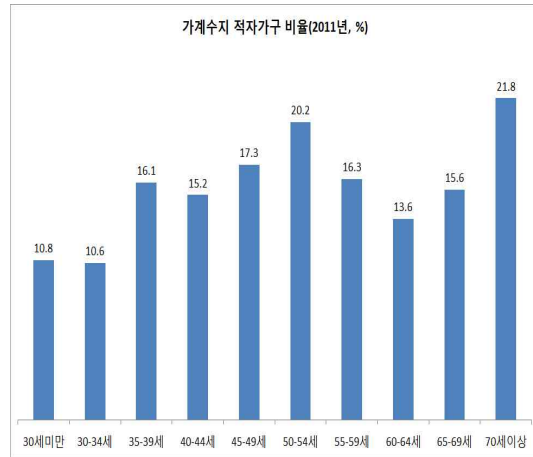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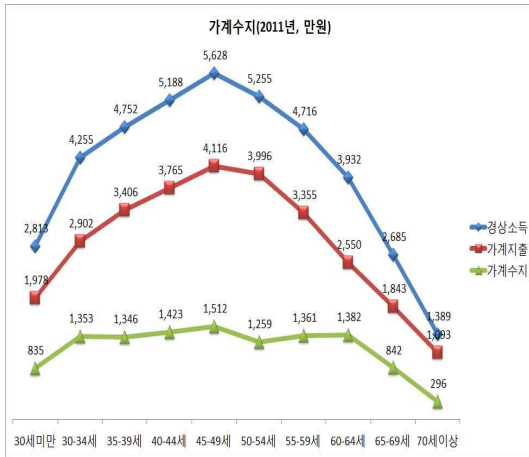
	지출	소비 지출	식료 품비	주거 비	교육 비	의료 비	교통 비	통신 비	기타 지출	비 소비 지출	세금 과징 금	공적 연금 사회 보험 료	지급 이자 및상 환액
30세미만	100.0	82.0	26.1	14.2	2.9	3.4	9.0	7.9	18.5	13.8	2.6	6.3	10.9
30-34세	100.0	75.2	22.9	10.1	4.7	3.9	9.5	6.2	18.0	17.0	3.7	6.5	12.2
35-39세	100.0	74.2	21.4	9.2	11.4	3.5	9.0	5.3	14.5	18.4	4.1	6.3	14.9
40-44세	100.0	75.7	20.4	8.7	16.0	3.1	8.8	5.3	13.5	18.9	5.2	6.0	14.9
45-49세	100.0	75.4	18.8	8.5	18.6	3.1	8.5	5.3	12.6	19.5	5.1	5.7	15.5
50-54세	100.0	75.4	18.9	8.9	14.5	3.8	8.8	5.3	15.2	18.8	4.6	6.0	13.9
55-59세	100.0	74.3	20.5	9.2	7.9	4.8	9.6	5.2	17.0	19.0	5.1	5.7	15.7
60-64세	100.0	75.6	23.4	10.5	2.8	5.5	10.1	5.0	18.3	15.7	3.8	4.2	10.2
65-69세	100.0	81.1	26.1	12.4	1.6	8.5	8.6	4.8	19.1	14.0	3.4	3.4	12.3
70세이상	100.0	85.1	29.6	15.5	1.6	12.3	5.8	4.1	16.2	12.4	3.4	2.5	10.6
전체	100.0	76.1	21.2	9.6	11.5	4.4	8.8	5.3	15.2	17.9	4.5	5.6	14.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3) 가계수지

- 2011년 한 해 가구당 가계수지 흑자(경상소득-가계지출)는 평균 1,175만원이다. 가계수지가 적자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6.6%고, 가구당 평균 695만원 적자다. 가계수지가 흑자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83.4%로, 가구당 평균 1,548만원 흑자다.

- 가계수지 흑자폭은 40대 후반(1,512만원)에 가장 크고, 가계수지 적자가구는 50대 초반(20.2%)과 70대(21.8%)에 가장 많다.



<표20> 가구주 연령별 가계수지와 적자가구 비율 (2011년, 단위: 만원, %)

	경상 소득	가계 지출	가계수지		적자가구			흑자가구		
			평균값	중위값	비율	평균값	중위값	비율	평균값	중위값
30세미만	2,813	1,978	835	628	10.8	-526	-215	89.2	1,001	722
30-34세	4,255	2,902	1,353	1,006	10.6	-833	-378	89.4	1,613	1,195
35-39세	4,752	3,406	1,346	820	16.1	-679	-431	83.9	1,733	1,097
40-44세	5,188	3,765	1,423	858	15.2	-617	-318	84.8	1,789	1,127
45-49세	5,628	4,116	1,512	813	17.3	-844	-434	82.7	2,005	1,129
50-54세	5,255	3,996	1,259	743	20.2	-1002	-556	79.8	1,831	1,087
55-59세	4,716	3,355	1,361	769	16.3	-955	-614	83.7	1,813	1,126
60-64세	3,932	2,550	1,382	636	13.6	-556	-221	86.4	1,688	826
65-69세	2,685	1,843	842	310	15.6	-435	-170	84.4	1,077	483
70세이상	1,389	1,093	296	89	21.8	-351	-136	78.2	476	163
전체	4,213	3,038	1,175	591	16.6	-695	-339	83.4	1,548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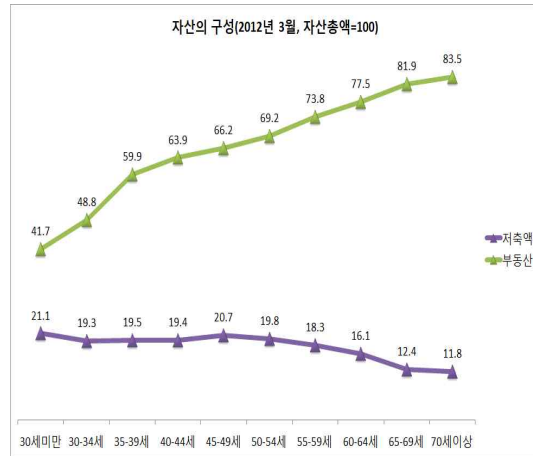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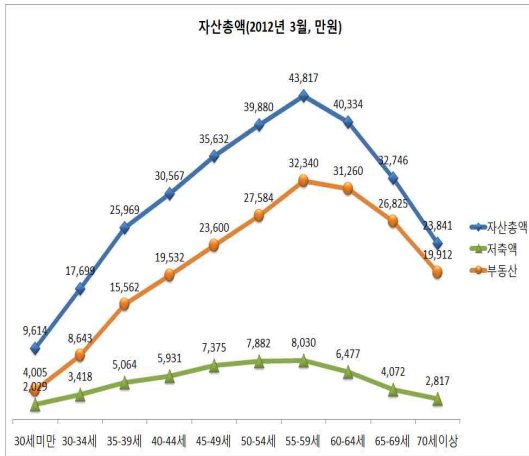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3. 순자산

#### 1) 자산총액

- 2012년 3월 현재 가구당 자산총액은 3억 1,495만원이다. 자산총액에서 금융자산은 7,855만원(24.9%)이고, 실물자산은 2억 3,639만원(75.1%)이다. 금융자산에서 저축액은 5,641만원(17.9%)이고, 실물자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총액과 저축액, 부동산은 5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저축액) 비중은 줄고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은 증가한다. 금융자산은 20대 51.7%에서 70대 14.7%로 줄고, 실물자산은 48.3%에서 85.3%로 증가한다. 금융자산 중 저축액은 20대 21.1%에서 70대 11.8%로 줄고, 실물자산 중 부동산은 41.7%에서 83.5%로 증가한다.



<표21> 가구주 연령별 자산, 부채, 순자산액 (2012년 3월, 단위: 만원)

	자산 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총액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 자산액
		소계	저축액	전일세보증금	소계	부동산	거주주택				
30세미만	9,614	4,970	2,029	2,941	4,644	4,005	2,822	1,441	1,153	288	8,173
30-34세	17,699	7,840	3,418	4,421	9,859	8,643	5,747	3,319	2,602	717	14,380
35-39세	25,969	8,774	5,064	3,710	17,195	15,562	9,514	5,035	3,942	1,093	20,933
40-44세	30,567	9,026	5,931	3,095	21,541	19,532	10,991	6,084	4,232	1,853	24,483
45-49세	35,632	9,921	7,375	2,546	25,712	23,600	12,388	6,942	5,100	1,842	28,690
50-54세	39,880	9,857	7,882	1,975	30,024	27,584	13,743	7,356	5,077	2,279	32,524
55-59세	43,817	9,383	8,030	1,353	34,434	32,340	16,726	7,730	5,084	2,646	36,087
60-64세	40,334	7,527	6,477	1,049	32,807	31,260	16,092	5,442	3,079	2,363	34,892
65-69세	32,746	4,866	4,072	794	27,880	26,825	15,680	4,205	2,227	1,978	28,541
70세이상	23,841	3,495	2,817	677	20,346	19,912	11,418	2,015	991	1,023	21,826
전체	31,495	7,855	5,641	2,215	23,639	22,023	12,019	5,291	3,599	1,693	26,203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표22> 가구주 연령별 자산, 부채, 순자산액 구성비 (2012년 3월, 단위: %)

	자산 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총액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순 자산액
		소계	저축액	전일세보증금	소계	부동산	거주주택				
30세미만	100.0	51.7	21.1	30.6	48.3	41.7	29.4	15.0	12.0	3.0	85.0
30-34세	100.0	44.3	19.3	25.0	55.7	48.8	32.5	18.8	14.7	4.1	81.2
35-39세	100.0	33.8	19.5	14.3	66.2	59.9	36.6	19.4	15.2	4.2	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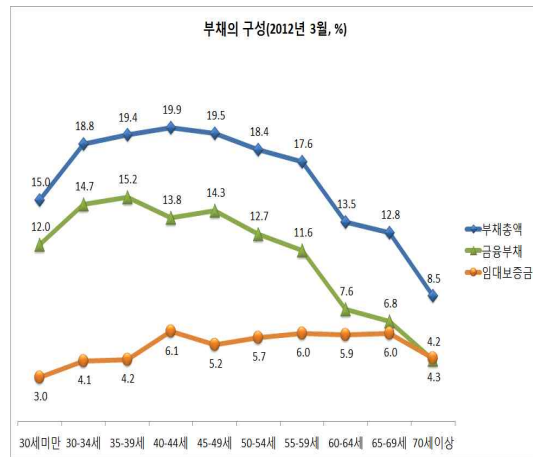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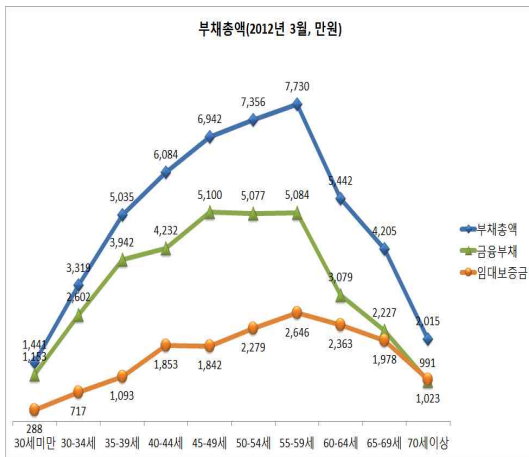


40-44세	100.0	29.5	19.4	10.1	70.5	63.9	36.0	19.9	13.8	6.1	80.1
45-49세	100.0	27.8	20.7	7.1	72.2	66.2	34.8	19.5	14.3	5.2	80.5
50-54세	100.0	24.7	19.8	5.0	75.3	69.2	34.5	18.4	12.7	5.7	81.6
55-59세	100.0	21.4	18.3	3.1	78.6	73.8	38.2	17.6	11.6	6.0	82.4
60-64세	100.0	18.7	16.1	2.6	81.3	77.5	39.9	13.5	7.6	5.9	86.5
65-69세	100.0	14.9	12.4	2.4	85.1	81.9	47.9	12.8	6.8	6.0	87.2
70세이상	100.0	14.7	11.8	2.8	85.3	83.5	47.9	8.5	4.2	4.3	91.5
전체	100.0	24.9	17.9	7.0	75.1	69.9	38.2	16.8	11.4	5.4	83.2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2) 부채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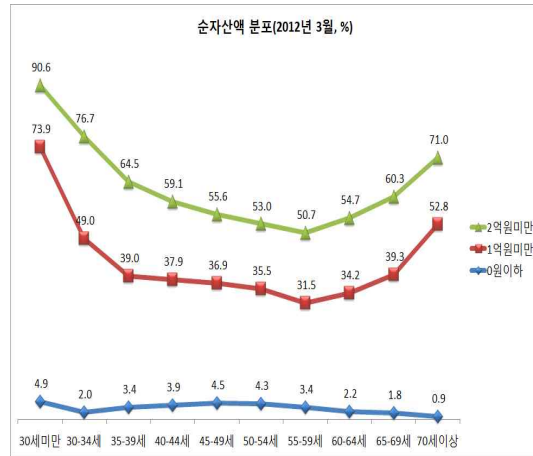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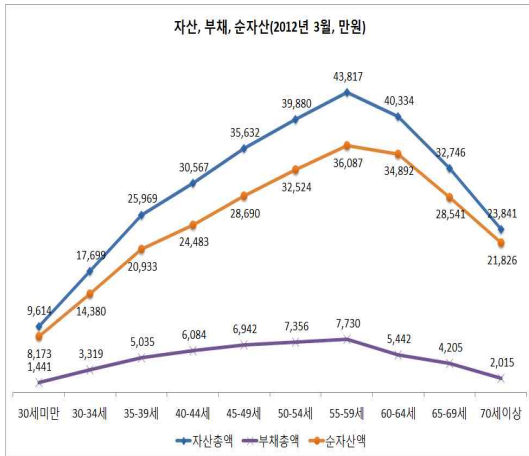
- 2012년 3월 현재 가구당 부채총액은 5,291만원(자산총액의 16.8%)이다. 부채총액에서 금융부채는 3,599만원(11.4%)이고, 임대보증금은 1,693만원(5.4%)이다. 부채총액과 임대보증금은 5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금융부채는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5,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 자산총액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초반(19.9%)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금융부채 비중은 30대 후반(15.2%)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 3) 순자산액

- 2012년 3월 현재 가구당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은 2억 6,203만원(자산총액의 83.2%)이다. 자산총액, 부채총액과 함께 순자산액도 50대 후반(3억 6,087만원)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액이 (-)인 가구가 전체의 3.1%다. 순자산액 1억 원

미만 가구는 37.9%고, 2억 원 미만 가구는 58.4%다. 순자산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50대 후반(50.7%)을 저점으로 20대는 90.6%, 70대는 71.0%로 늘어난다. 순자산액이 5억 원 이상인 가구는 50대 후반(21.0%)을 정점으로 20대는 1.5%, 70대는 10.4%로 줄어든다.



<표23> 순자산액 분포(2012년 3월, 단위:%)

	0원이하	0~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3억원 미만	3~4억원 미만	4~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전체
30세미만	4.9	69.0	16.6	5.1	1.8	1.0	1.5	100.0
30-34세	2.0	47.0	27.7	13.2	5.3	2.3	2.5	100.0
35-39세	3.4	35.6	25.6	15.4	7.2	4.3	8.5	100.0
40-44세	3.9	34.1	21.1	15.3	9.8	4.9	10.9	100.0
45-49세	4.5	32.4	18.7	13.3	9.4	6.9	14.9	100.0
50-54세	4.3	31.2	17.5	14.0	8.9	6.4	17.7	100.0
55-59세	3.4	28.1	19.1	14.5	8.4	5.4	21.0	100.0
60-64세	2.2	32.0	20.5	11.7	7.8	6.8	19.0	100.0
65-69세	1.8	37.5	21.1	10.5	8.3	5.1	15.8	100.0
70세이상	0.9	51.9	18.1	9.0	5.9	3.8	10.4	100.0
전체	3.1	37.9	20.5	12.8	7.8	5.0	13.0	100.0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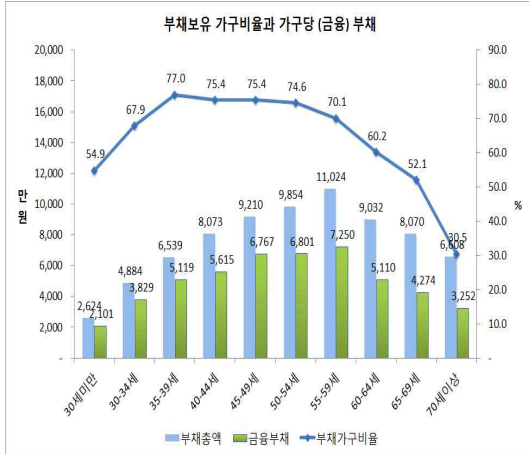
#### 4. 가계의 재무건전성

##### 1) 부채 보유가구 비율과 금액

○ 전체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4.6%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사이 부채 보유가구는 75~77%로,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가구당 부채총액은 8,187만원이고, 금융부채는 5,567만원이

다. 50대 후반은 가구당 부채총액이 1억 1,024만원이고, 금융부채는 7,250만원으로 가장 많다.



## 2) 부채 보유가구의 원리금 상환가능성과 생계부담

- 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구는 7.0%다. ‘원리금 상환 불가능’은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다.
- 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가구는 68.1%(약간 부담 42.2%, 매우 부담 25.9%)다. 이들 가구의 80%가 저축, 투자,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
- 부채 보유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가구는 31.9%다. 하지만 이들 가구도 원리금 상환이 가계소득의 20%를 넘어서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24> 부채 보유가구 원리금 상환가능성과 생계부담(2012년 3월, 단위:%)

	가계부채 상환가능성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부담없다 응답		부담스럽다 응답	
							부담되는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저축, 투자, 지출 축소 여부	
	대출 기한내 상환	대출기 한경과 상환가능	상환불가능	부담이 없다	약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평균값	중위값	줄이고 있음	줄이고 있지 않음
30세미만	68.9	28.0	3.1	31.2	45.6	23.2	20.1	20.0	74.6	25.4
30-34세	72.2	25.1	2.7	36.4	43.1	20.5	20.0	20.0	82.0	18.0
35-39세	70.3	25.3	4.4	32.1	43.9	24.0	19.3	20.0	80.6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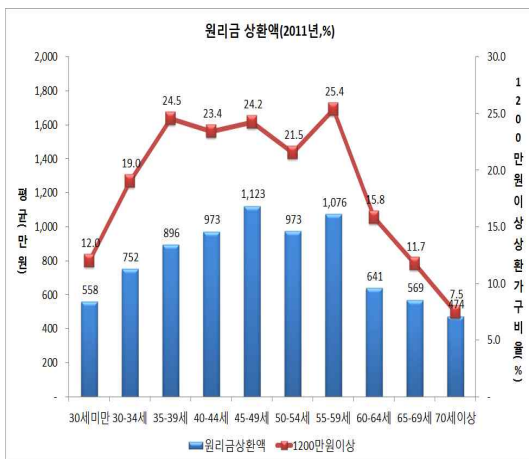
40-44세	65.4	28.7	5.9	30.8	43.9	25.3	20.0	20.0	77.8	22.2
45-49세	63.4	30.7	5.8	29.9	43.2	26.9	19.1	20.0	80.1	19.9
50-54세	62.1	29.2	8.7	31.3	41.1	27.6	19.1	20.0	79.2	20.8
55-59세	65.7	26.6	7.7	31.6	41.6	26.8	18.8	20.0	83.1	16.9
60-64세	64.0	24.6	11.5	31.3	39.5	29.3	18.0	20.0	77.2	22.8
65-69세	67.5	22.6	9.9	31.7	41.4	26.9	18.9	20.0	79.1	20.9
70세이상	61.5	20.4	18.1	37.0	32.5	30.5	17.5	20.0	77.7	22.3
전체	65.9	27.1	7.0	31.9	42.2	25.9	19.2	20.0	79.6	20.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3) 부채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

○ 부채보유 가구의 2011년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886만원이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60.1%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9.3%며, 1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0.7%다.

○ 40~50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973~1,123만원으로, 매달 80~90만원을 원리금상환에 붓고 있다. 40~50대는 매달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가구가 22~25%에 이른다.



<표25> 부채 보유가구의 원리금상환액 평균과 분포(2011년,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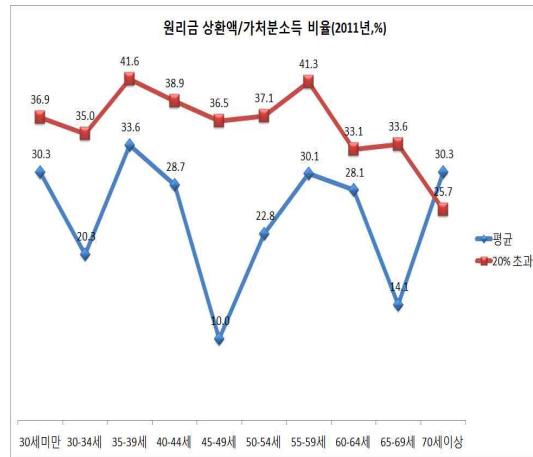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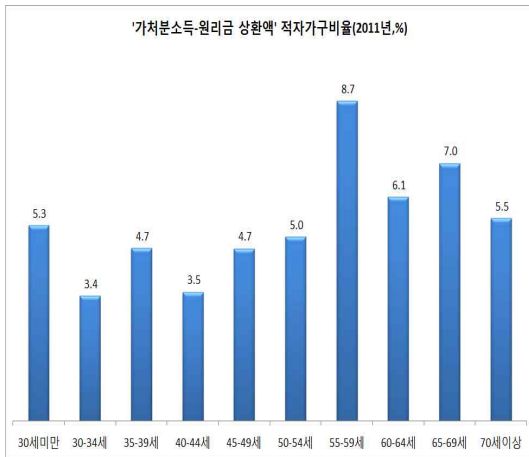
	원리금 상환액 평균(만원)	원리금상환액 분포(%)				
		600만원 미만	600~1200만원미만	1200~1800만원미만	1800~2400만원미만	2400만원 이상
30세미만	558	72.6	15.4	4.2	4.5	3.4
30-34세	752	60.0	20.9	8.5	4.3	6.3
35-39세	896	52.6	22.9	12.4	4.7	7.4
40-44세	973	53.5	23.1	11.7	3.8	7.9

45-49세	1,123	54.9	20.9	10.0	5.1	9.0
50-54세	973	58.2	20.2	9.5	3.0	9.1
55-59세	1,076	56.0	18.6	9.6	4.7	11.1
60-64세	641	68.7	15.4	8.1	1.5	6.2
65-69세	569	77.2	11.1	6.1	2.1	3.5
70세이상	474	83.3	9.2	3.5	1.1	2.9
전체	886	60.1	19.3	9.4	3.7	7.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4)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 부채보유 가구의 5.2%는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많다. 특히 고령층인 50대 후반(8.7%)과 60대 후반(7.0%)에 많다.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평균 24.5%다. 특히 20대(30.3%)와 30대 후반(33.6%), 50대 후반(30.1%), 70대(30.3%)는 30%가 넘는다.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37%다. 특히 30대 후반(41.6%)과 50대 후반(41.3%)에 많다. 가처분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상환에 쏟아 붓는 가구도 13.5%나 된다.



<표26> 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2011년, 단위: 만원, %)

	가처분소득-원리금상환액 (만원)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비율(%)							
	가처분 소득 (A)	원리금 상환액 (B)	A-B	적자 가구 비율	평균	10% 이하	10- 20% 이하	20- 30% 이하	30- 40% 이하	40- 50% 이하	50- 100% 이하	100% 초과
30세미만	2,694	558	2,136	5.3	30.3	42.2	20.8	11.1	7.8	3.3	9.4	5.3
30-34세	3,715	752	2,963	3.4	20.3	44.6	20.4	10.4	7.6	4.3	9.6	3.2
35-39세	4,047	896	3,150	4.7	33.6	39.1	19.3	14.5	7.5	5.7	9.8	4.2

40-44세	4,393	973	3,420	3.5	28.7	41.4	19.7	12.4	8.3	6.0	9.1	3.2
45-49세	4,562	1,123	3,440	4.7	10.0	44.5	19.0	11.6	6.7	5.0	9.6	3.7
50-54세	4,539	973	3,566	5.0	22.8	44.0	18.9	12.7	7.6	4.8	7.7	4.3
55-59세	4,501	1,076	3,425	8.7	30.1	41.9	16.8	12.2	8.0	4.6	8.8	7.7
60-64세	3,466	641	2,826	6.1	28.1	47.7	19.2	10.9	5.2	3.3	8.6	5.2
65-69세	2,487	569	1,917	7.0	14.1	51.1	15.3	8.6	5.9	5.6	8.2	5.3
70세이상	1,903	474	1,429	5.5	30.3	62.8	11.5	6.2	3.4	1.6	9.9	4.6
전체	3,959	886	3,073	5.2	24.5	44.7	18.3	11.6	7.0	4.7	9.0	4.5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5. 은퇴 후 생활

- 2012년 3월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가구는 271만4천 가구(15.2%)고, 은퇴할 때 나이는 평균 61세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여유가 있다’는 가구는 7.0%밖에 안 되고, ‘부족하다’가 61.1%, ‘보통이다’가 31.1%다.
-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를 가족, 친지 등의 용돈으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23.5%, 개인저축액이 11.7% 순이다. 60대 초반(42.1%)과 60대 후반(36.0%)은 공적연금 비중이 높지만, 70대는 공적연금(17.4%)이 줄고 가족, 친지 등의 용돈(37.4%)이 늘어난다.

<표27> 은퇴 가구주 은퇴연령과 생활비 충당 정도(2012년 3월, 단위:천명,%,세)

	은퇴 가구주			생활비 충당 정도(%)					생활비 마련 방법(%)			
	수 (천명)	비율 (%)	은퇴 나이 (중위 값)	충분 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보통 이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가족 친지 등의 용돈	공적 연금	개인 저축 액	기타
30세미만	0											
30-34세	1	0.1	30				100					100
35-39세	1	0.1	21					100				100
40-44세	10	0.4	39			45.5		54.5				100
45-49세	22	1.0	43			13.6	36.4	50.0	22.7		9.1	68.2
50-54세	57	2.4	50			28.6	28.6	42.9	12.5	8.9	14.3	64.3
55-59세	146	7.9	55	2.1	10.3	28.1	39.0	20.5	23.8	23.1	14.3	38.8
60-64세	309	23.2	60	3.6	8.4	35.1	35.7	17.2	20.7	42.1	19.7	17.5
65-69세	494	40.7	60	0.6	5.5	32.0	36.2	25.7	26.7	36.0	12.3	24.9
70세이상	1,674	67.2	65	2.3	3.8	32.0	39.8	22.0	37.4	17.4	9.9	35.4
전체	2,714	15.2	61	2.1	4.9	31.9	38.2	22.9	32.0	23.5	11.7	32.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은 은퇴연령을 65세로 생각하고, 노후 최저생활비를 150만원, 노후 적정생활비를 200만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구주 나이가 들수록 은퇴연령이 늦춰지고, 노후 최저생활비와 적정생활비도 낮아진다. 예컨대 60대 전

반에는 은퇴연령을 70세로 생각하고, 60대 후반에는 75세로 생각하며, 노후 최저생활비는 100만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 가운데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9.0%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가 36.6%, ‘잘 되어 있지 않다’가 54.4%다.

<표28>비은퇴 가구주 은퇴연령과 적정생활비 의견(2012년 3월, 단위:세,만원,%)

	비은퇴 가구주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 상황(%)						
	은퇴연령의견(세)	노후최소생활비(만원)	노후적정생활비(만원)	아주잘되어있다	잘되어있다	보통이다	잘되어있지않다	전혀되어있지않다	잘됨	잘안됨
30세미만	60	150	200	0.2	5.4	36.9	30.8	26.7	5.6	57.5
30-34세	60	150	250	1.0	6.6	41.3	31.4	19.8	7.6	51.1
35-39세	62	150	250	1.2	6.4	41.7	32.3	18.5	7.6	50.7
40-44세	62	150	250	1.5	7.1	36.6	34.0	20.8	8.6	54.8
45-49세	65	150	230	1.7	6.6	35.8	34.8	21.1	8.3	55.9
50-54세	65	150	200	2.3	7.6	34.6	34.8	20.7	9.9	55.5
55-59세	65	150	200	2.7	10.2	36.4	31.4	19.2	12.9	50.7
60-64세	70	100	150	2.2	7.0	32.2	36.3	22.3	9.3	58.6
65-69세	75	100	150	0.7	9.6	33.8	36.6	19.4	10.2	56.0
70세이상	80	90	100	2.4	6.4	32.2	37.8	21.3	8.8	59.0
전체	65	150	200	1.7	7.3	36.6	33.8	20.6	9.0	54.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원자료

## 제5장 맺는 말 - 요약과 함의

### 1. 시계열 추이

-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정치권력이 교체된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는 누적되고 있다.
-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50~60대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은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양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1의 정책과제로 추진했고, 고용사정은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앞으로 야권이 50~60대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야권이 집권해야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 생애주기별 노동생활

- 생애주기별로 노동생활 추이를 살펴보면, 20대는 노동시장 진입기, 30~40대 남자는 노동시장 정착기, 30대 여자는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시기, 40대 여자는 노동시장 재진입기, 50~60대는 남녀 모두 노동시장 퇴출기로 정의할 수 있다.
- 20대는 남녀 모두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다.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노동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높아진다.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도 작은 시기다.
- 30~40대는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노동자와 공식고용 비율이 줄고, 비임금 근로자와 비공식고용 비율이 늘어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시기다. 30~40대에 남성은 임금이 높아지지만, 여성은 임금이 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가 늘어나는 시기다. 30~40대에 늘어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임금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고용형태다.

- 50~60대는 노동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로 전환해 가는 시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은퇴 후 노후생활이 준비되지 않아, 노동생활과 은퇴생활 모두 불안정한 시기다.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는 정년 등을 빌미로 밀려나고, 노후생활은 준비되지 않아 다시 구직활동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저임금 계층과 최저임금 미달 자는 늘어난다.

### 3. 가계부채

- 전체 가구의 64.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가구가 7.0%며,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에 많다.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가구는 68.1%며, 이들 가구의 80%가 저축,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가구도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소득의 20%를 넘어서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 부채보유 가구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74만원이고, 매달 1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0.7%다. 40~50대는 월평균 80~9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2~25%에 이르고 있다.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많은 가구가 5.2%인데, 고령층인 50대 후반(8.7%)과 60대 후반(7.0%)에 많다.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평균 24.5%다. 원리금 상환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임계치인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37%고,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 붓는 가구가 13.5%다. 이밖에 가계수지(경상소득-가계지출)가 적자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6.6%며, 특히 50대 초반(20.2%)과 70대(21.8%)에 많다.

### 4. 노후생활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가구들은 '가족, 친지 등의 용돈'(32.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23.5%), 개인저축(11.7%) 순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 60대 초반(42.1%)과 60대 후반(36.0%)은 공적연금 비중이 높고, 70대는 가족, 친지 등의

용돈 비중(37.4%)이 높다. '생활비에 여유'가 있는 가구는 7.0%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가 31.1%, '부족하다'가 61.1%다.

-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은 은퇴연령을 65세로 생각하고, 노후 최저생활비를 150만원, 노후 적정생활비를 200만원으로 생각한다.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가구는 9.0%밖에 안 되고, '보통이다'가 36.6%, '잘 되어 있지 않다'가 54.4%다.
- 40세 이상 중고령자 가운데 노후생활을 준비하거나 준비한 사람은 60%고, 나머지 40%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 노후생활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 가입이 가장 많다.

## 5. 세대구성

- 가구당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이다. 40대 후반(3.5명)을 정점으로 60대 초반은 2.4명, 60대 후반은 2.1명, 70세 이상은 1.7명으로 줄어든다. 단신가구와 2인 가구는 40대를 저점으로 늘어나고, 4인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40대를 정점으로 줄어든다.
- 50~60대 남성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8% 안팎이지만, 여성은 50대 초반(15.4%)부터 60대 후반(36.8%) 사이 사별 또는 이혼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단신 가구가 늘면서 여성 가구주 비율은 30대 초반 12.1%, 40대 초반 17.9%, 50대 초반 26.2%, 60대 초반 28.1%로 나이가 들수록 늘고 있다.
- 가구당 취업자는 평균 1.3명이다. 50대 초반(1.7명)을 정점으로 60대 후반 1.1명, 70세 이상 0.5명으로 취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취업자가 1명인 가구가 44.9%고, 2명인 가구가 32.8%다.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가구는 15.7%인데, 50대 후반 9.6%, 60대 초반 14.5%, 60대 후반 31.3%, 70대 63.3%로 늘고 있다.
- 고학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세대 간에 학력별 차이가 뚜렷하다. 20~30대는 대졸자가 40%로 남녀 모두 학력수준이 높지만, 50~60대는 학력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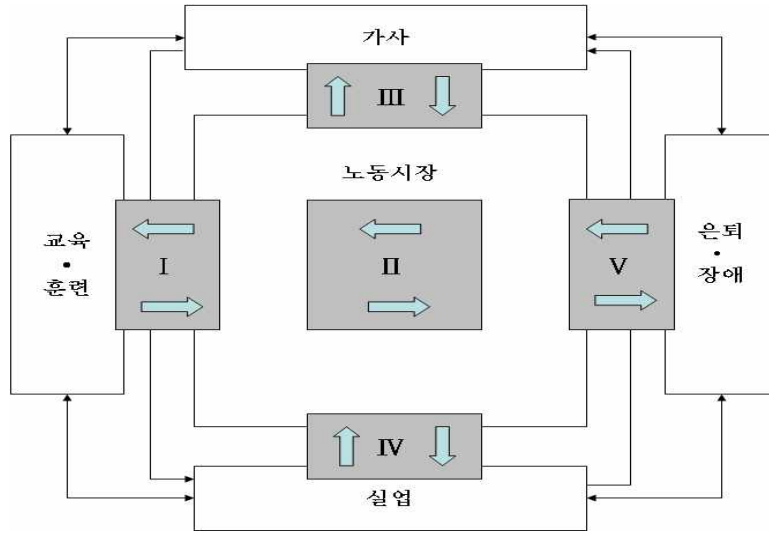
## 6. 함의

- 대선 직후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이러한 세대 담론의 객관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 과연 2030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대와 30대는 고학력자가 많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취업난을 겪는 20대 남녀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 정착기에 접어든 30대 남자,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여자는 노동시장 내 처지가 뚜렷하게 다르다.
-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인생 하강 곡선과 노동시장 퇴출기에 접어든 5060이 겪는 고용 및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감,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인도 ‘야권이 2030에 집중한 나머지 5060에게 그들의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이론은 생애과정에 걸쳐 고용과 기타 사회적 활동 간에 이행의 주요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이행은 교육·훈련과 노동시장/고용 간의 이행(I), 두 번째 이행은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고용관계 간의 이행 또는 피고용과 자영업 간의 이행(II), 세 번째 이행은 고용과 가사활동 간의 이행(III), 네 번째 이행은 고용과 실업 간의 이행(IV), 다섯 번째 이행은 고용과 은퇴 간의 이행(V)을 의미한다.
- 이러한 이행들은 일자리 경력의 하향곡선을 통해 실업의 반복이나 장기실업, 빈곤, 비경제활동상태 등의 사회적 배제로 귀결될 위험을 수반한다. 이행노동시장론은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함으로써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안으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문제의식을 참조해서, 생애주기별로 각 세대에 걸 맞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자료: Schmid(2002)